



작년 말→이달 중순→설 전... “주택공급 대책, 신뢰가 관건”

부동산 공급대책 차일피일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30%↓
9·7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더 상승
국토장관 “어느정도 계획은 나와
늦어도 1월 말 발표 하려고 노력”

올해 들어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
화됐지만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
지 내놓겠다고 공급 방안(주택공급 확
대 대책)은 이달 중순으로 예고됐지만
다음달 설 연휴 전으로 다시 연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여유있게 잡으면
명절(2월 중순) 전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지만 발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
부 정책의 신뢰도가 상실하는 만큼 늦어
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가 컸던 공급 절벽은 올해부터
현실화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7만2270세
대로 집계돼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
감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절

반 수준에 불과한 1만6412세대가 입주
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토
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규
제까지 겹치면서 매물은 잠긴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
주도인데다 시장이 기대했던 도시정비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으면
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
가 오히려 가팔라졌다. 공급대책 이후
에도 실제 착공·입주까지 수 년이 소요
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작년 11월 ‘국토부·LH 합
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 현장에서 “수
도권 전체를 놓고 어디에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
힌 바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 때 추진하
다가 안된 지역, 노후 정부청사,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
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장관의 발언이 몇 주 만에 힘이
빠진 것은 대통령이 “서울과 수도권 집
값 때문에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
는데, 살펴보니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직접 언급하면서다. 연말 국토부의 대
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주택 공급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 역시 지난달 중순께 국회 국
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
문에 (발표를) 다소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미래 위해 인적·물적 협력 확대하자 조세이탄광 한인희생자 공동조사도”

李 대통령-日 다카이치 정상회담
“유해 신원확인 DNA감정 등 추진
과거사 문제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
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만나 90여분간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
I) 등 미래 협력과 과거사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1942년 조세이(長
生)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
이 수몰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유
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조사에 나서
기로 합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
본 나라(奈良)현에서 만나 소인수회담
20분, 확대회담 70분, 합해 90여 분간 회
담을 진행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나
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한일 정상은 AI 등 미래 협력을 포함해
마약·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지식재
산의 보호, 고령화·지방소멸 등 공통 사
회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 여러 분
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특히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인 조세이
탄광 수몰자 발굴 문제도 진척이 있었
다. 양국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
A 조사에 합의한 것. 이재명 정부가 한
일 과거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모두발언
에서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
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
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진
전을 이뤄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
각한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
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일 확대 정상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종
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
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
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나아
가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
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환영하며 “이 대통령과 함께 일
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할 역할을 다해야 한다
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

“지역 안정을 위한 공조”라는 발언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으로 중
국과 갈등을 빚는 일본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
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
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진심
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
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
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SK하이닉스, 청주에 패키징 공장 짓는다

19조 투입, AI 메모리 수요 대응
7월 ‘P&T7’ 착공, 내년 말 완공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첨단 패키
징 팹(공장)을 신설해 최근 급증한 인공지
능(AI) 메모리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SK하이닉스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7만평 부지에 총 19조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팹 ‘P&T7’을 짓는
다고 13일 밝혔다.

P&T(Package & Test)는 전공정 팹에
서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제품 형태로 완성
하고 품질을 최종 검증하는 시설이다.

P&T7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담당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착공 후 내년 말 완공을 목표
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의 연
평균 성장률(2025~2030년)이 33%로
전망되는 만큼 HBM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며 “AI 메모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



SK하이닉스 신규 팹(Fab) P&T7 조감도.
/SK하이닉스

하기 위해 신규 투자 결정을 했다”고 설
명했다.

회사는 현재 추진 중인 청주 M15X와
P&T7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AI 메모리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투자는 정부의 지역 균형 성
장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공급망
효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
인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장기 투자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
도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제도적 환경 개선으로 투자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의 복합
적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사업 경쟁력
과 운영 효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자
를 결정해 왔다. 이러한 원칙 아래 지난
2018년 청주 M15를 준공했으며, 2024
년에는 AI 인프라의 핵심인 HBM 등 차
세대 D램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총 20
조원 규모의 신규 팹 M15X 구축 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
존 계획보다 앞당겨진 지난해 10월 클린
룸을 오픈하고 현재는 장비를 순차적으
로 셋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청주 P&T7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효율이나 유불리
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기반
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김정은, 경호 책임자 3명 교체...통일부 “비교
적 짧은 시간 물갈이”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재심·의총에서 거취
최종 결정 /사진 뉴시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준석 회동까지...국민
의힘 입지 개선될까
▲與원내지도부, 정책수석에 김한규...소통수석
에는 전용기

▲與 “쿠팡 국조 요구서 15일 본회의 보고... 못된
기업 행태 잡아야”
▲북한 ‘후계자 자리’ 제1비서 5년째 공석... 경호
라인은 물갈이

스마트폰 시장 프리미엄화 가속… ‘폴더블’ 핵심요소 부상

플래그십 모델 중심 시장재편
삼성·애플, 폴더블폰 정면대결
화면주름 개선 등 기술력 성패

지난해 새로운 폼팩터 스마트폰 출시와 제품 수요 증가가 맞물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소폭 증가했다. 올해는 부품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다만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은 폴더블폰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시장의 강한 수요와 경제 회복세가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20%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19%로 2위에 올랐다. 출하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 5%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스마트폰 부품 가격 상승으로 칩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보다는 AI 데이터센터용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다소



‘갤럭시 Z 트라이폴드’ 화면.

/차현정 기사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의 프리미엄화 흐름 속에서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폴더블폰을 비롯한 다양한 폼팩터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출시한 가운데 애플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참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오는 9월 ‘아이폰 폴더블’을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폰과 유사하게 소수의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양사는 폴더블폰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화면 주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막을 내린 ‘CES2026’에서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디스플레이가 올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갤럭시 Z 폴드 8’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갤럭시 Z 폴드 8’이나 ‘갤럭시 Z와이드 폴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향후 출시될 아이폰 폴더블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이폰 또한 폴더블폰에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주요 OLED 패널 공급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가 CES에서 공개한 폴더블 패널이 아이폰에 탑재될 것이라는 의견도 따랐다. 다만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용 OLED 패널을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개 행사에서 먼저 선보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이폰 폴더블에는 갤럭시 시리즈와는 다른 소재가 적용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아울러 폴더블폰은 기술 완성도와 함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램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고난도 제조공정이 맞물리면서 출고가인하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폴더블 가격은 3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이 신제품 출시 효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부품 가격 상승과 원가 부담으로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프리미엄 제품과 폴더블폰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사 hyeon@metroseoul.co.kr

기후에너지부 韓 ‘IRENA’ 의장국 지명

우리나라가 차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의장국 지위를 갖는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1~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7년 1년 동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의 주재를 비롯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 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로서 참석한 기후부의 이원주 에너지전환 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억원 “‘사람 살리는 금융’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금융위원장〉

금융위 산하 유관기관 업무보고

이 원장, 공공기관 성과·책임 강조
“관리대상 아닌 혁신 주체로 기능해야”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로 만들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정책 취지와 설계가 정교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이틀째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금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2일 개최한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융정책의 손과 발이며, 정책 성패의 책임이 모이는 자리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의 보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공공기관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

는 금융 정책의 대 전환 방향에 맞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이해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지역경제, 창업 벤처 중소기업으로 시종자금의 물꼬를 돌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구조적 개혁 과제를 담당하는 서금원, 신복위, 캡코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회복하고, 실패와 위기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점검하겠다”라며 “예보는 경제 안전판으로의 금융안정역할을,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금융에서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간의 중복 기능 조정, 협업과 시너지 또한 국민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각 기관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금융현장에서는 기관 간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원은 이어지고, 보호는 연결되며, 성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해야 한다. 업무 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협업의 부족은 정책단절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공공기관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자 한다”라며 “금융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 방식만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라며 “금융공공기관 역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법을 먼저 제시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1면 ‘작년 말—이달 중순—’서 계속

LH 수장 선임 ‘제자리’ 공급공백 장기화 우려

시장에선 그린벨트 해제, 유희부지 활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 같은 민감한 사업이 주변 주민·종교단체·지자체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첫째주 0.18% 올라 48주 연속 상승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1월 중순께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가 대책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정은 다시 미뤄졌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의 주요 주체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선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최근에는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상욱 부사장도 사의를 표했다.

한편 지난 9일 나온 ‘2026년 경제성장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6년 수도권 5만호 착공, 2만 9000호 분양을 계획했다.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로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호를 2030년까지 공급하는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안상미 기자 smahn1@

구윤철, 英·日 재무장관 회동… 韓 WGBI 편입 등 협력 모색

오는 3월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초청 받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영국·일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구 부총리는 G7 회의 기간 중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국 재무장관은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3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또 오는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일본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국과 일본 재무부는 양국의 경제발

전을 위해서도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영 양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타

HMM 재매각… 포스코·동원, 재무부담에 ‘인수전 장기화’ 전망

산은, 지분가치 재산정 완료

내달 최종평가 후 매각절차 본격화
본사 부산 이전 문제로 시간소요 예상

포스코, 투자부담으로 자금확보 난항
동원그룹, 현금성 자산 부족에 차질

한국산업은행이 내달 말 HMM 지분 가치 재산정 최종보고서를 받고 본격적인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유력 인수 후보인 포스코는 재무 건전성 부담을, 동원은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안고 있어 인수전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HMM 지분 가치 재산정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정밀 실사를 거쳐 2월 말 최종 평가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HMM의 보통주 3억3413만3427주(지분율 35.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6년 해운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HMM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사관리에 나섰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현대그룹이 경영권을 내려놓으면서 산업은행은 해양



HMM 컨테이너선.

/HMM

진흥공사와 함께 출자전환과 영구채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지분을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HMM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글로벌 물류 대란과 해운임 급등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지난 2023년 매각에 나섰다.

당시 인수후보는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동원그룹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인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해운업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와 인수 후보들의

재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적정 가격을 제시한 원매자를 찾지 못했고,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다.

◆ 포스코·동원 ‘셈법 복잡’

산업은행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HMM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준 HMM의 시가총액은 19조 3835억원에 이른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합계 지분율은 70.5%다. 각각 35.42%, 35.08%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지분인수 금액과 리스

크가 부담이다. 산업은행 지분만 판다해도 시가로 7조원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10조원 가까운 금액이 될 수 있다.

인수 유력 후보로는 포스코그룹과 동원그룹이 거론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7조 1688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자금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포스코는 본업인 2차전지 소재와 수소 환원 제철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총 121조원 투자를 공식화한 상태다. 10조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되는 HMM 인수는 재무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원그룹은 김재철 명예회장의 특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드러냈지만 자금 조달 능력이 걸림돌이다. 지난 3분기 기준 동원그룹이 사실상 현금보유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4934억원, 단기금융예치금 2428억원 등 총 7362억원이다. 이를 포함한 당좌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유동성은 2조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대규모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 부산 이전 변수에 시간 소요

시장에서는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앞서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은 지난해 7월 임명되자마자 HMM과 산하기관, 해사법원, 동남투자공사 등의 부산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부산 이전을 마쳤다.

전재수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HMM 육상노조 간부들을 직접 만나 당위성을 설득했다.

HMM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여서 부처 차원의 현안이긴 하지만, 컨트롤타워 가비에 있는 상황에서 이전 방식이나 발표 일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HMM 지배구조 개편과 본사 부산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HMM 내부의 반발도 부산이전 전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며 “결국 매각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값 4600달러 돌파… 이란 사태 등 불확실성에 ‘고공행진’

〈현지시간 12일·온스당〉

금 현물 가격 2% 가까이 치솟아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의지 재확인
파월 소송, 美연준 독립성 우려 키워
이란 시위, 미국 개입 가능성에 급등

금값이 하루 만에 100달러 넘게 오르며 급등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해왔다. 여기에 미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연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금값을 끌어 올렸다.

13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당 4614.70달러다. 직전 거래일보다 113.80달러(2.53%)달러 급등했고, 금값이 작년 12월 말 이후 처음으로 4500달러를 넘긴 지 하루 만에 46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이란 사태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이 치솟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 중인 골드 바. /뉴시스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만 온스당 273.60달러(6.3%) 상승했다.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수 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서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작년 12월 2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물가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으며 시작됐다.

시위는 이란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이란의 독재자 알리 하메네이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이란 당국은 이달 초부터 실탄을 사용한 강경진압을 개시했고, 인터넷을 차단한 가운데 시위대 사망자는 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란 정권이 자국민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일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금수조치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다양한 대응 옵션을 브리핑 받을 것이며, 사이버 공격과 군사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합병 요구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그린란드 확보’를 공식화했다. 협상 수단으로는 ‘매

입’과 ‘군사 개입’ 두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일원인 덴마크의 영토인 만큼, 나토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하는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미국 합병 요구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나토 내에서 방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의 합병 요구를 거절했다. 같은 날 랜디 파월 미 공화당 의원은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제 조사에 돌입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금값을 끌어 올렸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긴급성명을 통해 “지난 9일 미 법무부로부터 연준이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대배심 소환에 불응하면 ‘법정 모독죄’로 수감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직후부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연준 본관 개·보수를 위한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으며,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를 압박했다. 이번 강제 수사 또한 해당 공사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 금 가격의 강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금융회사 소시에테 제네랄의 마이클 헤이그 원자재 연구 책임자는 “(안전자산 수요에 따라) 높은 불확실성은 금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매주 또 다른 불확실성의 영역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제약사, 약가인하 압박 속 ‘코프로모션 러시’

〈공동판매〉

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독점 계약
동화약품, 일본 카켄 제약과 협력
한미약품, 한독테바와 아조비 유통

국내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압박 속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을 확대하고 있다. 단기 수익성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수입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지며 결국 약품비 부담은 커지고 국내 기업들의 자생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 제약사 삼일제약은 대만 제약사 포모사의 안과질환 개량신약 ‘APP13007’에 대한 국내 제조, 홍보, 유통 및 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APP13007은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의 나노현탁액으로 안과 수술 후 통증 및 염증 완화에 쓰인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 환자에 처방되고 있어 국내 시장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화약품은 일본 카켄 제약이 개발한 거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라겔’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거드랑이 다한증 치료제가 전문의약품으로 발매되는 것은 에크라겔이 첫 사례로, 동화약품이 국내 독점 공급을 맡는다.

대원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정’, ‘이달비클로정’, ‘이달디핀정’ 등 3종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맺어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이달비정’, ‘이달비클로정’ 등은 셀트리온이 일본 다케다 제약에서 인수한 후 생산 내재화를 이뤄낸 제품이다.

대형 제약사 가운데선 한미약품이 오

리지널 의약품을 지속 도입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한독테바와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아조비 프리필드시린지주’와 ‘아조비 오토인젝터주’를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이달부터 유통 및 판촉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부터 패링제약의 야간노·야노증 치료제 ‘미니링정’과 녹더나실하정’에 대한 영업·마케팅 권한도 확보했다. 미니링과 녹더나는 해당 질환 시장에서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 타격이 예고되면서, 수입 의약품 코프로모션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이슈 보고서 ‘2012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약가인하 노출 기업의 코프로모션 매출액 비중은 2012년 약 3.5%p 증가한 후 2019년까지 2.2~3.8%p의 범위에서 증가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일상화 위해 기술발전보다 ‘비용절감·안전성·수용성’ 관건

피지컬 AI, 수익창출 분수령

올해 피지컬 AI는 개념 검증과 시범 적용 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성패가 갈리는 분기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 성숙도보다 중요한 변수는 경제성과 규제,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다. 단기적으로는 산업 자동화의 보조 수단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노동 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피지컬 AI는 AI가 로봇, 센서, 기계장치와 결합해 실제 물리 공간에서 인식·판단·행동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용 로봇과 구분된다.

그동안 AI 산업의 중심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디지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서 피지컬 AI가 차세대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제조기업이 로봇과 AI 결합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배경이다.

엔비디아는 로봇용 AI 플랫폼 ‘아이작’을 통해 물리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실제 공장에 투입해 현장 검증을 진행 중이다. 아마존은 물류센터 전반에 AI 기반 로봇을 배치해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피지컬 AI는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제한적이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

◆ 가장 빠른 확산 영역은 제조·물류

13일 IT업계에 따르면 현재 피지컬 AI가 가장 빠르게 자리 잡는 분야는 제조



올해 피지컬 AI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성패가 갈리는 분기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창고 자동화를 위해 설계된 지능형 물류 로봇인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스트레치로, AI 기술 기반 트럭과 컨테이너에서 물류를 하역한다. /현대차그룹

단기적으로 산업 자동화 보조수단
중장기적으로 노동·산업구조 재편
엔비디아, 로봇용 AI 플랫폼 ‘아이작’
물리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환경 제공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실제 공장 투입해 현장 검증 진행

와 물류다. 반복 작업 비중이 높고 작업 환경이 비교적 표준화돼 있어 AI 판단과 로봇 제어의 결합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협동 로봇과 AI 비전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피지컬 AI는 작업 속도 조절, 오류 감지, 위험 상황 회피 역할을 맡는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현장에서 상황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형 자동화’에 가깝다.

물류 분야의 변화도 빠르다. 물품 분류, 이송, 적재 과정에 AI 로봇이 투입되며 인력 의존도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물류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이들 산업에서 피지컬 AI 도입의 경제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인건비 절감, 작업 속도 개선, 사고 감소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다. 올해 기준으로 제조·물류 분야는 피지컬 AI가 ‘기술 투자’가 아닌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이동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서비스·일상 영역은 여전히 ‘조건부’

반면 서비스와 일상 영역에서의 피지컬 AI 확산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병원, 요양시설, 가정용 로봇 등은 기술 완성도 외에도 안전성, 신뢰성,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조하는 로봇이나 요양시설에서 활용되는 돌봄 로봇은 작은 오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

문에 상용화 이전에 장기간의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비용 부담 역시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가정용 로봇의 경우 기술보다 ‘쓸모’가 관건이다. 단순 기능만으로는 가격 대비 효용을 설득하기 어렵고, 인간의 생활 방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설계가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서비스·일상 영역의 본격 확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한국의 현실, 기술은 있으나 시장은 아직

국내 상황도 글로벌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과 일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공장 자동화와 물류 로봇 도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형 피지컬 AI는 여전히 실증 사업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로봇·AI 융합 실증 사업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확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증은 늘었지만, 시장 형성으로 직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초기 도입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피지컬 AI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어려워, 하드웨어 교체와 유지 관리 비용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도 확산의 걸림돌로 꼽힌다.

◆ 단기 확산은 ‘보조 수단’, 중장기는 ‘구조 변화’

전문가들은 피지컬 AI 확산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와 내년을 기준으로 단기 확산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위험 작업, 반복 작업, 고강도 노동을 중심으로 제한적 확산이 이어질 전망

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지컬 AI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제조, 건설, 물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산업이 동시에 변화하는 방식은 아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산되는 ‘점진적 침투’가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꼽힌다.

제조·물류, 로봇·AI 시스템 도입해
생산라인 효율성·자동화 등 박차

서비스·일상 영역 확산은 아직 더더
규제 샌드박스 등 확산 유도에도
민간투자 본격화까지 시간 걸릴 듯

◆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경제성과 사회적 합의’

결국 피지컬 AI 확산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 비용 절감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맞물릴 때 확산 속도는 빨라진다. 기술은 이미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현실에 들어왔지만, 모든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남아 있다.

피지컬 AI는 단번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기보다, 가능한 곳부터 조용히 스며드는 기술에 가깝다. 확산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한 번 자리 잡은 영역에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년 피지컬 AI의 관전 포인트는 기술 진보가 아니라, 어디까지 사람이 내려놓을 준비가 됐는가에 달려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정부 포장·대통령 표창 수상 ◆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수상(영국 하나님의 교회) ◆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금상 85회, 라이프타임상)

세계와 함께 걷는 선한 길 바른 길



엘로힘기념관을 찾은 제83차 해외성도방문단.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새 언약 복음을 성경의 원형대로 복구한 전 세계 유일의 교회다. 해마다 각국 성도들이 본 교회 발상지인 대한민국을 찾고 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성경대로’의 기본을 세워
묵묵히 정로(正路)만을 걸은 복음의 한 길.
그 선하고 바른 길을 세계인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국내외 400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사랑의 길을 따르며
2026년도 변함없이 희망으로 밝혀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SK이노베이션은 답을 찾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면
(세계 각지에서 직접 찾아낸다는 답)

매연도 소음도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답)

AI시대,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다면
(누구에게나 꼭 맞는 다양한 해법을 준비한다는 답)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에도 김병기 ‘재심’ 신청하며 버티기

金, 의혹 대부분 징계시효 만료 주장
민주당, 60일 이내 심사·의결해야
스스로 결단 요청하는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현금 수수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김 의원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12일) 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의 서울시의원 공천현금 수수 묵인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현금 수수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에 대한 김 의원의 소명을 듣고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으로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자신을 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려싼 의혹 대부분이 3년의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한 김병기 의원은 제명

처분 소식 접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해야 한다. 윤리심판원에 제명 처분에도 김 의원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당 지도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당초 지도부는 김 의원이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고 14일 최고 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를 통해 김 의원 건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심이 이뤄져 사태가 장기화되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재심 청구 역시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며 “당 사자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며, 정치의 책임과 도덕성”이라고 부연했다.

윤리심판원의 재심 심사 및 의결 기간인 60일 보다 훨씬 빠르게 재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당 대표는 재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비상장계를 내릴 수 있지만, 원내에선 윤리심판원에서 이미 제명 처분이 나왔고 당규에 재심 절차를 보장한 만큼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상장계 절차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심도) 당에서 정한 절차이기에 우리가 지켜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김 의원의) 사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개인에게 보장된 재심 청구 같은 것은 권리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된 조짐을 보이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꽃이 진다고 봄이 끝난 것은 아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한 김 의원을 지적한 것이란 평이 나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준석-장동혁 “통일교·공천 특검, 항소 포기 규명” 공감대

조국 대표 불참식에 아쉬움 전해
국힘 “수사 미진하면 특검법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만나 정부·여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하자며 머리를 맞댔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김병기·강선우 의원 낙취록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공천현금 수수, 민주당·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대장동 검찰 항소포기 경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두 정당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만남은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러브콜을 보내는 와중에 이 대표가 장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3당 회동을 제안한 뒤 성사된 자리다.

조국 대표는 회동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참석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협력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두 정당의 만남의 물꼬가 트임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보수 정당

의 연대가 성사될 지도 관전포인트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자리가 성사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당”이라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선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5579억원을 환수하려 계좌를 압류했다.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 대우 계좌에 7만원, 천하동인에 3만원이 있었다”며 “미리 다 빼돌린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다. 수사팀 전원이 항소하자고 했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을 받았다고 한다.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낙취록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을 13개에 가깝다. 녹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현금·통일교 특검 연대’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있고 탄원서가 있고 돈이 오갔다. 그런데 탄원서가 어떻게 됐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갔다가 피탄원인 김 의원에게 그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통일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전직직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여권 의혹을 인지하

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기들 유리한 특검은 단독 통과, 불리한 특검은 보류, 신천지를 끼워 넣어서 몰타기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기고 수용하는 착하는 시간 끌기”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국 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 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다”며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을 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우리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윤리심판원에서 제명한 사안이고,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라며 “양당 대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미진한 경우 양당은 함께 공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與 “2차 종합특검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로 대응”

내일 국회 본회의 예정

국회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진희·해병대원)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 법사위가 어제 내란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갖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

에 기가 찰 따름이다. 철저히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 파괴, 정치 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률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견례를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등 신뢰회복 최우선 ‘본질에 집중’

2026 카드사 생존전략

신한카드

카드업계가 수익성 둔화와 정부 규제 강화,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기조와 금리 변동성,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기존 수익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 카드사들은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비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 각 카드사가 돌파구 모색을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신한카드는 새해 내실경영 기조를 강화한다. 연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기업 리스크가 부각되자, 대외적으로 신규 사업 전략을 천명하기보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조용히 내부 체질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 신년사 생략…‘본질’에 집중

올해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은 2026년 공식 신년사를 생략했다. 매년 신년사를 공개해 오던 과거와는 다른 행보다. 사업 확장 전략보다는 내부 경쟁력 재정비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비전보다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내부 경쟁력 재정비의 큰 틀은 마련

정보유출 이상징후 실시간 탐지
출력물·화면 촬영 추적 시스템 등
정보유출 사태 직접적 후속조치
2개부서 통합 ‘영업기획부’ 출범

됐다. 신한카드는 신년 전략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2026년 전략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신한카드 본사와 박창훈 사장.

/신한카드

설명했다.

◆ 내부통제 재정비·소비자 보호

신한카드는 새해를 맞아 정보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대표적으로 정보 유출 사고 이상징후를 실시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보유출 사태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로 카드 영업점

출력물과 업무 화면 촬영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하반기 인사에서도 경영 방향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말 소비자보호본부장에 김종화 전 무를, 테크그룹장에 윤승원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고위직 인적 쇄신을 계기

로, 올 한 해 소비자 보호와 정보보호, 정보기술(IT) 강화 기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카드 결제 사업 등 본업 경쟁력 강화 기조도 이어간다.

앞서 신한카드는페이먼트 대응력 제고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페이먼트 기술을 개발하는 ‘페이먼트 R&D팀’과 영업 전략을 총괄하는 ‘영업기획팀’을 ‘영업기획부’로 통합했다. 기술 개발과 영업 핵심 전략 부서를 통합해 조직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편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숙제다. 특히, 삼성카드가 신한카드를 바짝 추격하는 형세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신한카드의 외형 성장 및 내실 다지기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3분기 신한카드 누적 당기 순이익은 3804억원으로, 삼성카드(4973억원)에 누적순이익 기준 업계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베트남 시작 아시아 보험교육 리더 도약”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간담회

“연수원 창립 60주년 첫 해의 진출
인니 등 아시아서 온라인사업 확대”

“AI 학습 시스템을 접목해 아시아 온라인 보험 교육 리더로 도약하겠다. 그 시작은 베트남이다.”

보험연수원이 올해를 ‘글로벌 온라인 교육’ 확장 원년으로 설정했다. 창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보험교육 시장에 진출한다는 포석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13일 ‘2026년 기자간담회’에서 베트남을 첫 진출국으로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자회사 설립과 상반기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X402) 구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원장은 “해외 보험 교육 시장 진출은 연수원 창립 60년 만에 처음”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베트남을 첫 글로벌 진출 국가로 선정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사업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DB손해보험·한화생명 등)와 협력을 논의 중이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13일 ‘2026년 보험연수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로 온라인 교육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 온라인 교육의 경쟁력을 근거로 해외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 원장은 “연수원 수입의 약 70%가 온라인 교육 수입”이라며 “베트남 사업은 진출 국내 보험사들과 구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AI 자회사 설립도 공식화했다.

하 원장은 “AI와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연수원은 AI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관 개정 등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AI 시험출제 시스템과 AI 학습운영 시스템(LMS) 기술을 개발해 왔고, 현재는 사업모델을 정교화하는 단계다. 자회사 설립 준비 과정에서는 해외 AI-LMS 전문기업 위즈덤 가든(Wisdom Garden)을 포함한 2개 기업이 투자 의향서 작성 단계이고 추가 기업과도 협의 중이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상반기 중 결제 인프라 구축과 학습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추진한다. AI 에이전트 자동결제 시스템인 X402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X402 상용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런투언(Learn to Earn) 개념을 학습 과정에 도입한다. 모바일 교육과 AI 퀴즈 등을 연계하고 학습 성과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지급하는 ‘마이크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다. 싱가포르 블록체인협회와의 공동 자격증·교육과정 개발도 추진한다.

하 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올해 상반기에 수강료를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카카오뱅크, 17일 밤 시스템 업데이트

체크·미니카드 금융거래 일시중단

카카오뱅크가 오는 17일 오후 11시 50분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스템 최적화,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카드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이 진행되는 새벽 시간 동안에는 체크카드 및 미니(mini) 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업무는 ▲체크·mini 카드 발급 및 해지 ▲국내 및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결제 취소 포함)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카드 이용 정지 및 분실 신고 ▲mini카드 티머니 서비스(충전 등) ▲고객센터를 통한 카드 관련 상담 및 업무 처리 등이다.

다만,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점검 시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의 모든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서비스 중단 예정 시간은 약 7시간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년 보험사 재무건전성 판단 요건 도입

금융위 ‘기본자본 키스 50%’ 설정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키스) 규제에 ‘기본자본 키스 50%’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50%의 기준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키스 취지상의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기타 권역과의 비교를 통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키스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키스의 구성 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키스 비율은 모든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산출 시 사

용되는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에 의존해 자본 키스 비율을 확대하는 만큼, 손실 흡수력이 충분한 기본자금으로의 구성을 유인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의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 비율 유지 요건도 마련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면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상환 후에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안유진 담은 ‘하나 나라사랑카드’ 첫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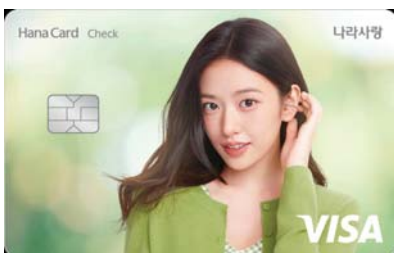
카드 배송시 안유진 자필엽서 동봉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모델인 아이브(IVE) 안유진의 사진을 플레이트(Plate) 디자인한 새로운 ‘하나 나라사랑카드(사진)’를 오는 16일부터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

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안유진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특히, 카드 배송 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안유진이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자필로 담은 엽서가 카드와 함께 동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가 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편의는 물론 정서적인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대표 나라사랑카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롯데케미칼, ‘석화’ 사업재편 속도 고부가 제품 등 수익 중심 체질전환

석화업황 부진… 수익 확보 사활
여수 사업장 등 비용구조 재정비
업계 “근본적인 구조전환 쉽지 않아”

롯데케미칼이 장기간 이어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축으로 한 고강도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석유화학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환을 통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4분기에도 2055억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비수기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겹치며 주요 석유화학 제품 시황이 악세를 보인 가운데 수익성 압박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기준 영업손실 역시 7098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은 공급 과잉과 수요 회복 지연이 구조적으로 이어

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에틸렌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범용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수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왔다. 석유화학 비중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업황 흐름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황이 개선될 경우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업황이 악화되면 손실 규모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수익 구조가 이어지면서 롯데케미칼은 단기적인 상황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비용 구조와 사업 체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대산과 여수 단지를 중심으로 중복 설비를 통합·조정하고 설비 효율화를 추진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산 사업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설비 구조 조정에 착수했고, 여수 사업장 역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에도 속

도를 내고 있다. 범용 석유화학 제품 비중을 낮추고 고부가 제품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려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에서는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중장기 실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핵심 사업으로 거론된다. 이른바 ‘라인프로젝트’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형 석유화학 단지 사업으로, 약 5조원을 투입해 연간 에틸렌 100만톤과 프로필렌 52만톤, 폴리프로필렌 35만톤 등을 생산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가동 단계에 진입할 경우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이 반영될 경우 손실 폭이 일부 완화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석유화학 산업 전반이 아직 구조조정의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단기간에 사업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거나 근본적인 수익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가 13일 그랜드 워커히에서 공개한 ‘필랑트’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 오로라 프로젝트 ‘필랑트’ 공개

CUV 형태 준대형 모델… 3월 출시

르노코리아가 13일 오로라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모델 ‘필랑트’(FILANTE)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필랑트는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특성을 담은 크로스오버(CUV) 형태의 준대형급 모델로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를 이어갈 차세대 모델이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해 3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현대차 쏘타페, 기아 쏘렌토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르노코리아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에서 필랑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파브리스 캄볼리브 르노 브랜드 최고경영자(CEO)와 르노그룹 디자인 총괄 로렌스 반 덴 아커 부회장,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최성규 르노코리아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캄볼리브 CEO는 “르노그룹은 2027

년까지 유럽 외 지역 판매량의 3분의 1을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판매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디자인·엔지니어링·생산이 모두 이뤄지는 르노의 글로벌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필랑트는 눈에 띄는 디자인과 테크라운지 콘셉트의 실내 공간, 개선한 하이브리드 이-테크(E-Tech) 파워트레인 등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르노코리아는 앞서 출시한 그랑 콜레오스에서 선보인 직병렬 듀얼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은 100kW의 구동 모터 및 60kW의 시동 모터가 기술된 1.5L 터보 직분사 엔진과 만나 250마력의 시스템 최고출력을 발휘한다. 엔진의 최대 토크는 25.5kg.m다. 복합 기준 공인 연비는 L당 15.1km로 주행 거리는 800km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LS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생존을 위한 투자”

쪼개기 논란 관련 ‘재상장’ 입장 밝혀
“수주물량 대응 위해 대규모 투자 필요”

LS그룹이 자회사에식스솔루션즈상장 추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번 상장은 ‘쪼개기 상장’이 아니라 해외 우량자산을 국내 자본시장에 다시 편입하는 ‘재상장’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기업공개(IPO) 외에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LS는 13일 에식스솔루션즈 상장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상장이 기존 핵심 사업을 분리해 상장하는 물적분할 방식이 아니라 과거 인수한 해외자산을 한국 자본시장에 편입시켜 시장평가를 받는 ‘재상장’ 또는 ‘인바운드상

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외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려는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글로벌화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LS는 이번 상장이 단순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효율 특수 권선과 변압기용 특수 권선(CTC)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테슬라,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미국 내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CTC 주문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납기까지 4~5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다.

LS는 늘어나는 수주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권선 제조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입 확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보다는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상장을 통해 조달한 5000억원을 미국 내 설비 투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기업가치가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모회사인 LS의 기업가치 제고로도 이어지는 ‘가치증대형’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LS는 “과거 LS 주가가 저평가받은 주요 원인은 자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과 자금 지원 부담이었다”며 “이번 IPO는 ‘모회사의존 고리’를 끊는 결단으로, 에식스솔루션즈가 자체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면 LS는 추가적인 지급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LG이노텍, 광주사업장 증축… 1000억 투입

차량용 반도체 신사업 박차

LG이노텍이 차량용 반도체 신사업 확대를 위해 광주사업장 증축에 나선다.

LG이노텍은 광주광역시와 공장 증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LG이노텍은 이번 투자금을 신사업 확대를 위한 광주사업장 증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공장은 오는 12월 완공 예정으로, 차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 생산라인이 추가로 들어선다. 완공 후 LG이노텍 광주사업장 전체 연면적은 총 9만7000㎡에 이르게 된다.

차량 AP모듈은 LG이노텍이 지난해

첫 시동을 건 신사업 분야다. 이 제품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처럼 차량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차량 내부에 장착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디지털 콕핏과 같은 자동차 전자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데 쓰인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광주사업장은 1985년 준공 이후 LG이노텍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솔루션사업의 ‘마더팩토리’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핵심사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오충지인 만큼, 광주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들과 동반 성장하며 고객을 위한 탁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박민우 AVP 본부장·포티투닷 대표 선임

엔비디아 출신…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현대자동차그룹이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및 자율주행 기반 차량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해 세계적 기술 인재를 영입했다.

현대차그룹은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에 엔비디아 출신 박민우 사장(사진)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SDV와 자율주행 전 영역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기술 통합, SDV 전략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임 박민우 사장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비전 기반 자율주행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양산과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 세계적인 기술 리더이다.

박민우 사장은 최근까지 엔비디아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자율주행 인지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양산 및 상용화를 주도했다.

특히 인지 및 센서 융합 기술을 전담

하는 조직을 이끌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진행한 양산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의 차량 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 연구 단계였던 기술을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한 양산 기술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박민우 사장은 “현대차그룹이 기술과 사람이 함께 다음 세대의 지능형 모빌리티를 이끌어 가고, 세계 혁신의 기준이 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태광그룹, 코스메틱 전문법인 ‘실’ 설립

김진숙 대표 선임… 뷰티 사업 박차

태광그룹이 코스메틱 전문법인 ‘실(SIL)’을 설립하고 K-뷰티 신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섬유와 화학 중심이던 태광이 소비자 접점 사업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태광그룹은 13일 독자적 뷰티 브랜드 전개를 위한 코스메틱 전문법인 SIL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실은 태광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글로벌 컨설팅 그룹 커니(Kearney)와 삼성전자 등을 거친 신사업 전문가 김진숙 대표가 초대

대표로 선임됐다.

이번 법인 설립은 태광산업이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신사업 투자계획의 일환이다. 태광산업은 올해 2월 인수가 마무리되는 애경산업과 실을 양 축으로 글로벌 K-뷰티 시장의 공략을 시작으로 고객 중심의 B2C 사업 구조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숙 대표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통해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빠르게 제품과 마케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K뷰티 시장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건설 침체 속 봉형강 시장 ‘불안정’ 제강사, 가격 정상화로 수익성 방어

동국제강 H형강 가격 108만원 고시
현대제철 실거래가 반영해 가격 조정

환율 원가압박 속 철근 가동률 49%
가격 반등으로 공급불균형 완화기대

건설 경기 침체로 저가 경쟁이 심화되며 봉형강 시장의 가격 질서가 흔들리자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H형강 판매 가격 고시를 재가동하며 가격 정상화에 나섰다. 철근 시장 역시 가격 반등 시도가 이어지며 제강사 전반의 수익성 방어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와 하나증권 등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오는 19일부터 중소형 H형강 판매가격을 톤당 108만원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유통가격(국산 S725) 103만원 대비 톤당 5만원 인상이다. 동국제강의 H형강 가격 고시는 지난해 11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며, 2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는 최근 H형강 가격 하락세와 철스크랩 가격 상승, 전기요금 부담이 맞물리며 제강사 원가 압박이 커진 점이 가격 조정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도 H형강 판매가격 고시를 2개월 만에 재개했다. 현대제철은 오는 19일부터 소형 H형강 판매가격을 톤당 108만원으로 적용하는 가격 방침을 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톤당 115만원의 고시가격을 제시했지만, 시장 침체로 실거래가 가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을 반영한 조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연초 들어 철



현대제철 인천공장 H형강 생산 모습.

/현대제철

스크랩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원가 압박이 확대되고 있어 2월 가격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H형강 가격이 수요 침체와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정 수익성 확보’ 방향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철근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동국제강은 1월 2주차 철근 유통 판매가격을 톤당 71만5000원으로 고시했으며, 전주 대비 1만5000원 인상됐다. 다만 철근은 수출 확대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도 뚜렷하다는 평가다. 1~2월 철근 수출 물량은 약 30만톤으로 내수 판매 압박을 완화하고 있으며, 수입산 재고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월 제강사 철근 출하 계획은 51만6000톤으로 최근 5년 평균(64만2000톤)을 크게 밑돌았다.

국내 8대 철근 제강사 가동률은 1월 기준 49.6%로 지난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제한 출하 기조가 이어지며

유통시장 가용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철근 공급 과잉 완화와 가격 회복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철근발 가격 회복 흐름이 H형강과 열연 등 다른 강재 가격 인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H형강은 건설 산업의 대표적인 주력 철강재로, 철강산업은 주변 산업 경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며 “최근 철스크랩 가격 상승과 교환율 환경은 철강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외부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국제강은 가격 현실화에 나선 반면 현대제철은 실거래가 하락을 반영해 유연한 대응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환경만 놓고 보면 가격을 내릴 요인이 없지만 내수 부진이 제강사들로 하여금 저가 경쟁을 감내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LX판토스

‘메가와이즈 청라센터’
美 LEED ‘골드등급’ 획득
9개 평가 영역서 고른 점수

LX판토스의 메가와이즈 청라 물류센터가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다.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운영하는 LEED는 전 세계 186개국 기업과 기관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기준이다. 에너지, 물, 자재, 토지, 실내환경 등 건축물의 환경 성능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3일 LX판토스에 따르면 메가와이즈 청라 물류센터는 ▲에너지·대기 ▲물 효율 ▲재료 및 자원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등 9개 LEED 평가 영역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LEED 골드 등급을 획득한 것은 국내 신축 물류센터 중에서 두번째다.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물류업계를 비롯한 공급망 전반에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및 남창라IC에 인접한 메가와이즈 청라 센터는 연면적 14만2852㎡ 규모의 초대형 풀필먼트 센터다.

/김승호 기자

HJ重, MRO사업 본격 시동 美군수지원함 정비작업 착수

‘아멜리아 에어하트’ 영도조선소 입항
설비점검 등 거쳐 3월 미 해군 인도

HJ중공업은 자사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의 첫 선박인 4만 톤급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호가 지난 12월 부산 영도조선소에 입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함정은 HJ중공업이 지난해 12월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로부터 수주한 선박으로, 길이 210m·너비 32m 규모다. 미 해군 전투함 등 주력 함정에 최대 6000톤의 탄약·식량·건화물과 2400톤의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군수지원함이다.

전날 입항과 접안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 도선과 예인선 등 항내 관공선이 투입돼 복항 방파제부터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항행을 안전하게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은 이달부터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해 각종 장비·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국내 해양방위산업체 1호 기업인 HJ중공업은 지난 2024년부터 MRO 시장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입항.

/HJ중공업

진출을 준비해온 끝에 지난해 12월 미 해군으로부터 첫 MRO 사업을 수주했다.

조선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른 MRO 시장은 지난해 79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미 해군 MRO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이어 HJ중공업이 세 번째로 미 해군 사업을 수주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협력 기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중국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한 ‘골든 플릿(Golden Fleet)’ 구상 승인으로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유혜은 기자

김기문 “대·中企 상생, 경제 도약해야”

(중기중앙회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정치·경제계 주요인사 350여명 참석

중소기업계가 ‘2026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고 역동적인 경제 도약을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와 정부 부처장·차관급 인사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제계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회장, 중소기업 단체장, 청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임광현 국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주한 중국·베트남·UAE·오만·카타르·카자흐스탄 대사 등이 자

리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조배숙·서영교·박성민·강승규·김원이·배현진 의원·오세희·문대림·한민수·송재봉·박지혜·최보윤·박준태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신년사에서 “60년 만에 돌아온 적토마의 해를 맞아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AI혁명이라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사자성어로 선포한 ‘자강불식(自強不息)’을 소개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의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대한항공, 라운지에 ‘엔터테인먼트’ 더했다

제2터미널에 체험형 라운지 새단장
쿠킹 클래스·아케이드 룸 등 선보여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갖춘 새 라운지를 13일 공개했다.

라운지는 총 1553제곱미터(㎡) 면적에 192석을 갖췄다. 뷔페와 라이브 스테이션, 식사 공간, 라운지 바, 샤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객이 항공기 탑승 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테크 존 등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도 마련해 출장객의 편의를 높였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는 기존 기능에 체험형 프로그램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더한 점이 특징이다.

라운지 한편에 ▲쿠킹 스튜디오(L'atelier) ▲아케이드 룸(Arcade Room) ▲라면 라이브러리(Ramyeon Library)를 마련해 다른 라운지와 차별화했다.

라운지 내 쿠킹 스튜디오에서는 그랜드 하얏트 조리사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 다양한 토핑을 활용한 바크(Bark) 초콜릿 만들기 등 모든 연령대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쿠킹 스튜디오 입구에서 예약한 뒤 참여할 수 있다. 아케이드 룸은 포토부스, 인형 뽑기, 에어 하키, 카레이싱 등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라운지는 14일 정식 오픈하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53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있다.

/양성운 기자 ysw@

美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중진공, 중기부 SVC내 KSC 개소
스탠퍼드대 StartX와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K-스타트업센터(KSC)’를 새로 열고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 등을 돕는다. 스탠퍼드대 StartX와 진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진공은 지난 9일 ‘KSC 실리콘밸리’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6번째 KSC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내에 자리잡고 있다.

센터는 ▲스타트업 입주공간 제공 ▲전문가 멘토링 ▲현지특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현지 진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에게 기술실증, 마케팅, 투자유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현신균 “피지컬 AI, 로봇 원팀처럼 설계·조율하는 것 핵심”

〈LG CNS 대표〉

CES서 피지컬 AI 시장 전략 밝혀
“현장 잘 아는 LG CNS, 시장 주도
제조업 중심 韓기반 경쟁우위 확보
로봇 테스트·검증 등 전 과정 수행”

LG CNS는 현신균 대표이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해 기자들을 만나 피지컬 AI 시장 주도 전략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신균 사장은 “LG CNS는 로봇 하드웨어에 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산업현장 데이터를 파인튜닝 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 투입된 로봇을 학습시키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재학습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역할이 로봇의 산업현장 투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다양한 산업에 기반한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가 CES 2026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LG CNS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숙련된 공정 과정이 많아, 피지컬 AI를 검증하고 고도화하기에 적합한 시장으로 꼽힌다. 이 때

문에 글로벌 로봇·AI 기업들 역시 한국 제조 현장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주목하고 있다.

현 사장은 “LG CNS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빠르게 확보해 현장에 적용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LG CNS가 ‘피지컬 AI’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 CNS 피지컬 AI 전략의 핵심은 개별 로봇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조사와 목적의 로봇이 한 팀처럼 움직이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조율하는 ‘마에스트로(Maestro)’다. 각 로봇이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연결해 유기적으로 협업하도록 만든다.

이를 위해 LG CNS는 로봇 트레이닝과 테스트, 검증 전 과정을 수행한다. 제조·물류 현장은 공정마다 역할과 작업 방식이 달라 실제 업무 흐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현 사장은 “LG CNS는 다양한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어떤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각 업무 단계에서 어떤 판단과 노하우가 필요한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며 “산업별 공정 특성과 난이도, 작업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봇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학습시키고, 현장의 언어와 규칙을 이해하는 ‘산업 지능’을 갖추도록 진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로봇이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는 통합 관제·운영부터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기종 로봇을 로봇 통합운영 플랫폼에 연동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며, 작업 지시 시 각 로봇의 상태와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 업무를 배분한다. 이를 통해 로봇의 동선과 작업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반영해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다.

LG CNS는 로봇이 현장 데이터를 지

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준비 중이다. 변화하는 환경과 작업 조건에서도 로봇이 스스로 적응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피지컬 AI 전략은 로봇 하드웨어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LG CNS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물류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 중이다. 현재 10여 개 고객사의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개념검증(PoC)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 분야의 검사 공정이나 물류센터 내 적재·회수 작업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있다.

특히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작업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공정, 안전상 위험 요소가 큰 작업 등 기존에 자동화가 어려웠던 고부가가치 영역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시리에 제미나이 심는다… 애플-구글 AI 동맹 SKT, AI로 보이스피싱·스팸 11억 건 차단

구글 시가총액 4조달러 넘어
빅테크 AI 진영 재편 신호탄

애플이 차세대 AI 파트너로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선택하면서, 구글은 AI 기대감에 힘입어 시가총액 4조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13일 글로벌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차세대 인공지능 전략의 핵심 외부 파트너로 구글 제미나이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협력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구글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iOS와 macOS, 아이패드OS 등 자사 생태계 전반에 적용할 생성형 AI 기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구글 제미나이를 핵심 외부 모델로 활용하는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AI 역량을 지속 강화하면서도, 대규모 언어모델 경쟁에서는 검증된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와 온디바이스 AI를 핵심 기조로 삼아왔다. 사용자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애플 AI 전략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경쟁이 고도화되면서 단말기 내부 처리만으로는 기술적 한계가 뚜렷해졌고, 대규모

연산과 멀티모달 처리 역량을 갖춘 외부 파트너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 제미나이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모델로, 대규모 서비스 적용 경험과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애플 입장에서는 사용자 경험과 보안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I 기능을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로 제미나이를 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협력 구도가 시장에 알려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은 구글로 집중됐다. 생성형 AI 시장에서 오픈AI와의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애플이라는 세계 최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가능성은 구글의 AI 전략에 대한 신뢰도를 단숨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에 힘입어 구글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를 넘어섰고, AI 기술이 기업 가치 재평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선택을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 간 AI 진영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애플은 제미나이를 통해 생성형 AI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고, 구글은 자사 AI 모델을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 중 하

나로 자리매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다.

이번 결정은 오픈AI를 포함한 경쟁 진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오픈AI는 이미 여러 플랫폼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운영체제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애플과의 협업 여부는 AI 시장 주도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꼽혀왔다. 애플이 구글을 선택하면서 AI 경쟁 구도는 ‘구글·애플 연합’과 그 외 진영으로 보다 선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애플이 단일 파트너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서비스 특성이나 지역, 규제 환경에 따라 복수의 AI 모델을 병행 적용하는 전략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 성능’에서 ‘플랫폼 결합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 어떤 AI가 더 뛰어난가보다, 어떤 플랫폼에 기본값으로 탑재되는지가 시장 판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의 선택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SOOP, 국내·글로벌 플랫폼 통합

콘텐츠 유통 속도 높이는 등 구조 개편

SOOP(쇼)이 국내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합하며 글로벌 스트리밍 경쟁에 본격 대응한다. 13일 SOOP은 국내 서비스와 글로벌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국가별로 분산돼 있던

서비스구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와 스트리머는 단일 계정과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작·시청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 경험의 일관성이 강화된다.

SOOP은 이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유통 속도를 높이고, 광고와 후원 등 수익 모델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에서 축적한 플랫폼 운영 경험과 스트리밍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합을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으로 평가한다. 플랫폼 경쟁이 단순 트래픽 확보를 넘어 생태계 규모와 수익성 경쟁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SOOP 역시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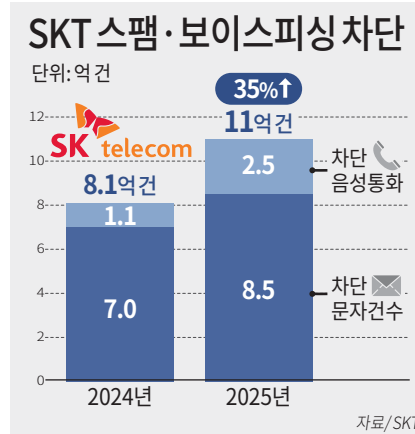
/최빛나 기자

악성 앱 자동 탐지, 피해 예방 등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예정

SK텔레콤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과 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 전반에 적용해 온 결과다.

지난해에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통화패턴 분석 기반 AI 모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는 전년 대비 119% 늘어난 2억5000만 건, 문자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8억5000만 건을 차단했다.

또 자체 개발한 AI 기반 금융사기 탐지 기술 ‘스캠뱅크드’를 PASS 스팸 필터링의 ‘미끼문자 알림 서비스’와 에이닷 전화의 ‘AI 안심차단’ 기능에 적용했다. 이 기술은 금융기관·지인 사칭 등 보이스피싱과 스팸 통화·문자를 탐지해



이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제공한다.

에이닷 전화에는 통화 중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팝업과 알림음으로 안내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도 적용됐다.

올해는 스팸·피싱 차단 전 과정에 AI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악성 앱을 AI로 자동 탐지·수집·분석하고, 위험 차단과 피해 예방까지 연결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통신 서비스의 안전성과 고객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LG U+ “놀면서 스펙 쌓을 대학생 모여라”

내달 1일까지 ‘유쓰피릿’ 17기 모집

LG유플러스가 대학생 앰버서더 프로그램 ‘유쓰피릿’ 17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외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2월 1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유쓰피릿은 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생들이 LG유플러스의 20대 전용 브랜드 ‘유쓰(Uth)’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20대의 관점에서 브랜드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대외활동 프로그램이다. ‘청년의 정신(spirit)으로 도전하는 20대’를 의미하며, 매년 상·하반

기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유쓰피릿 17기는 일상 속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혜택 홍보 및 자문 활동을 비롯해 유쓰 캠퍼스 페스티벌 기획·운영, 20대 전용 브랜드 ‘유쓰’ 캠페인 기획, 상품·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대학생 트렌드 키워드 발굴 등에 참여하게 된다.

지원자는 2월 1일까지 지원서와 사전 미션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3월부터 7월까지 활동하며, 개인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현대차, 車 넘어 ‘AI 피지컬’ 기업으로… 이달 주가 37% 폭등

AI 기업 전환으로 주가 재평가 흐름
시가총액 순위 6위로 다시 올라서
현대차 담은 ETF도 수익률 강세
증권사, 목표가 최대 42만원 제시

다시 주도주 자리를 꿰차는 걸까. 올해 내내 지지부진하던 현대차 주가가 1월 들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지난 한 해 현대차 상승률은 72.64%로 같은 기간 코스피(75.63%)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24년 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위였던 현대차는 지난 6월 한 때 시가총액 순위가 9위까지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13일까지 코스피가 4600선까지 11.35% 오르는 동안 현대차 주가는 29만65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36.93%나 뛰었다. 지난해 내내 주가를 짓눌렀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시장에서 현대차를 ‘전통적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로봇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뚜렷한 재평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 2026 현대차그룹 미디어데이에서 보스턴다이나믹스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왼쪽)’과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 공개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가 흐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시가총액 순위도 6위로 다시 올라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현대차 시가총액은 83조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도 강세다. 13일 기준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ETF는 최근 1개월 수익률

10.47%, 1년 수익률 80.27%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현대차를 27.23%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으며, 기아 24.16%, 현대모비스 15.25% 등 현대차 그룹 핵심 계열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총 편입 항목 수는 20개로, 이 가운데 주식 종목은 19개, 현금성 자산은 원화 예금 1개다.

최근 주가와 관련 상품의 상승을 이끄

는 핵심 요인은 현대차가 올해 본격적인 ‘AI 기업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다. 삼성증권은 현대차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7.6% 상향한 40만원으로 제시하며 “2026년부터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상용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현대차의 기업 성격이 완성차에서 AI 기업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과 LS증권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각각 40만원, 42만원으로 제시하며 피지컬 AI 사업 가치를 본격 반영하기 시작했다. 신한투자증권도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높였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엔비디아 GPU(그래픽 처리 장치) 5만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만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현대차가 발표한 ‘국내 125조원 투자 계획’ 중 71%(약 89조원)가 미래 신산업·연구개발(R&D)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자율 주행·로봇·SDV

등 ‘피지컬 AI’ 기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CES 2026’에서는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와 함께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2028년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 본격 투입하고 2030년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봇을 기술 시연이 아닌 생산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CES 공식 파트너인 글로벌 기술 전문 매체 CNET이 선정한 ‘최고 로봇상’에 뽑혔다. 2018년 7월 수석부회장이던 정의선 회장 주도로 로봇 전담 조직인 ‘로보틱스팀’을 꾸린 지 8년 만이다.

정 회장은 올해 신년회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움직이는 실체’와 ‘제조 공정 데이터’는 빅테크 기업들도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며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환율 할인’에 테슬라 중심 美 주식 매수세

해외주식 Click

올해 서학개미 23.6억弗 순매수
테슬라 관련 종목에 7.5억弗 투자
알파벳, 엔비디아 등 M7에도 집중

정부가 환율 진정을 위해 벌인 총력전 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환율 할인’ 기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주춤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다시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 쇼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일까지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3억6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동일 기간 미국 주식 순매수액 중 최고치에 달한다. 서학개미들은 지난달 25일, 30일, 31일 각각 8456만달러, 9165만달러, 1억4543만달러를 순매도했지만 새해에 들어서자 다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투심을 가장 자극시킨 종목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2024년 서학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관련 이미지.

개미들의 굳건한 지지를 받았던 순매수 1위 종목으로 ‘테슬라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올해도 12월 기준 4억2978만달러를 사들였으며,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볼 2X 셰어즈’ ETF도 3억4149만달러 담았다. 테슬라 관련 종목에만 7억5000만달러를 넘게 투자한 것이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M7·애플·알파벳·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메타·테슬라 등)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순매수 상위 종목에 알파벳(1억7490만달러), 엔비디아(1억87만

달러) 등을 함께 담았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대표주로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를 1억2307만달러,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1억7490만달러씩 각각 담았다.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M7의 존재감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증시에서 M7이 갖는 시장 지배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블룸버그 M7지수가 25% 상승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16% 상승률을 웃돌기는 했지만 알파벳과 엔비디아의 착시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첫 거래일 당시에도 S&P500이 1.8% 올랐지만, M7지수는 0.5% 상승에 그쳤다.

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주식시장에서 모멘텀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역사적 고점에 머물러 있는 대형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證, 금융자산 30억 고객 6000명 돌파

고객자산가, 국내주식 투자비중 늘어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고객 수 6000명 시대를 맞았다.

1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삼성증권의 30억원 이상 고객 수는 6223명으로 2024년 말 대비 5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의 고객자산가의 자산 규모도 급성장했는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고객 자산이 2024년말 대비 70% 가까이 상승, 약 135조 원을 달성했다.

이른바 ‘신흥부자’로 불리는 30대와 40대에서도 고객자산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3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30대의 수가 2024년말 대비 77.0% 가량 증가했고, 40대 역시 같은 기준으로 79.8% 늘어나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한편, 삼성증권은 고객자산가들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투자 비중 ↑ ▲반도체·로봇 등의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로 삼성증권 30억원 이상 고객자산가의 포트폴리오(지분성 제외)를 분석해 본 결과, 2024년 말 국내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던 반면, 2026년 1월 6일 기준에는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이 44%로 늘어나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초고액자산가의 국내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ETF 제외)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유, 현대모비스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회복 및 로봇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하은 기자

단기사채 1160조 돌파… 1년 만에 33% ↑

예탁원 ‘지난해 단기사채 발행 현황’

지난해 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33% 넘게 증가하며 116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3일 ‘2025년 단기사채(STB) 발행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단기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11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868조3000억원) 대비 33.6%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단기사채는 만기 1년 이하의 전자등록 방식 회사채로, 기업어음(CP)과 콜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단기사채 조달 수단이다. 최근 금리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

들이 장기 차입 대신 초단기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발행 유형별로는 일반 단기사채가 83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4% 늘었고,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단기사채는 325조9000억원으로 34.1% 증가했다. 전체 발행액 가운데 일반 단기사채 비중은 71.9%, 유동화 단기사채는 28.1%를 차지했다.

만기 구조는 더욱 단기화됐다. 3개월(92일) 이하 발행 규모가 1156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당일물·1일물·2~7일물 등 초단기 물이 573조4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 단위 자금 운용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證, ‘IMA S2’로 흥행 이어간다

국내 1호 IMA 상품에 1조 몰려

지난해 12월 선보인 국내 1호 IMA 상품에 나흘 만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던 한국투자증권이 두번째 종합투자 계좌(IMA) 상품을 내놓는다.

한국투자증권은 13일 한국투자 IMA S2'를 출시하고,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한 뒤,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원금 지급의 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국내 1호 IMA 상품에는 4영업일 동안 1조590억원이 몰리며, 개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와 제도에 대한 시장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한국투자 IMA S2’는 2년 3개월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최

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와 자산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최종 수익이 결정되며, 모집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운용 자산은 국내 인수금융과 기업대출 등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금융 자산이 핵심이다.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우선하면서 시장금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개인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대체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농식품 모태펀드 2470억 출자 청년·푸드테크 등 투자규제 완화

농식품부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분야 1000억
청년기업성장펀드 투자 상한 폐지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가 2470억 규모의 자펀드 결성에 나선다. 특히 청년기업에 대한 투자 상한을 폐지하고 푸드테크 기업의 업력 제한도 없애는 등 투자 대상과 방식의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농식품부가 정책자금을 출자해 조성한 공공 모태펀드이다. 민간 자본과 함께 자펀드를 만들어 농식품·농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청년·지역 농식품 기업 등 정책적으로 육성할 분야에 장기·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

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 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 원 상회한 규모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44.5%) 대비 20.1%포인트(p) 증가한 64.6%를 기록했다.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또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IRR) 역시 7.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총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1000억 원 ▲청년기업 투자에 480억 원 ▲세컨더리펀드 조성에 350억 원 ▲농식품 일반

분야에 3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40억 원 ▲민간제안 분야(유통)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 농식품 기업의 성장, 청년 인재의 농촌·농식품 산업 유입,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목적 투자와 시장 수요 간의 연계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영세한 청년 기업들이 적기에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했던 푸드테크 분야는 후속 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업력 제한을 없애고, 청년기업성장펀드의 초기·사업화 단계별로 건당 3억 원, 5억 원이었던 투자금액 상한도 폐지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혁신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 활성화’ 머리 맞대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스페이스서울 서울역센터에서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을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올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고, 정책 기조를 ‘지역 주도·중앙 지원’으로 전환한다. 중앙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용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 등 후방 지원 역할에 집중한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주요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당부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의 의견들은 향후 정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해양수산 창업지원센터’ 추가 공모

해양수산부는 1월14일부터 2월13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시·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센터에서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컨설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총 7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사업 수행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기대성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2월13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

“농민신문 등 검직 사임… 농협 조직쇄신 단행”

외부 전문가 중심 ‘농협개혁위’ 구성
강 회장 “책임있는 자세로 신뢰 회복”

비위 및 방만 경영의 중심에 선 농협중앙회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직 등 검직 중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해외 스위트룸 숙박비도 반환한다고 밝혔다.

또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손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등 구조개혁에도 착수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조직 쇄신 계획을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던 중 고개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분의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농협은 우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검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 등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호화 호텔숙박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외 숙박비 규정은 몰가 수준을 반영해 재정비하고,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반환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절차 착수

핵심 키워드 ‘균형발전·생태계 확장’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지방자치단체,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3기 특화단지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다. 산업부는 ‘5극 3특’ 체제에 맞춰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간 연계·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절차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검토제’가 처음 도입

된다. 먼저 지자체가 핵심 구상을 담은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위원들이 정책 적합성을 컨설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공식 공고와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한 뒤, 서면·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6월께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최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중앙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분야에서 5년 연속 대외 인증을 받으며 공기업 연구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기계물성실 등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으며, ‘semi-hot lab.’

이 최우수연구실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2021년 공기업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이후, 매년 신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해 왔다.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고도화하며 연구 현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경북 “수출·투자확대 통해 글로벌 위상 확립”

수출기업협회 신년회 개최
맞춤형 수출전략 네트워킹 강화
초보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AI기반 산업 혁신으로 새 도약

경북도는 12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026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신년회 및 수출확대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여권택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수출기업과 수출지원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경북 수출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수출 전략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경북 수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경북도의 2026년 수출지원 시책 안내와 함께 수출 관계기관의 수출 확대 혁신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과 해외



경북수출기업협회 신년회 및 수출 확대 전략 설명회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장 진출 전략이 소개됐다.

2부에서는 우수 회원사에 대한 표창이 진행돼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수출확대혁신전략세미나에서는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지원

사업 안내, 코트라 대구경북지원본부의 해외 수출지원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의 수출지원 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보험 활용 방안 등이 소개돼 참석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시장별·품목별 맞춤형 수출 지원과 디지털·온라인 수출 마케팅 강화, 물류와 환율 변동 대응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수출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 초보기업 역량 강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026년 병오년은 속도와 도전, 전진의 기운이 필요한 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경북 수출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APEC을 통해 높아진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실

질적인 수출 성과와 투자 확대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혁신이 경북 경제의 새로운 도약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조와 서비스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 현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인공지능 센터 지원과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는 2014년 10월 도내 132개 수출기업으로 출범해 현재 1,300여 개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수출기업 협의체로 성장했다. 협회는 해외시장 정보 공유와 수출 애로 해소, 기업 간 협업 촉진을 통해 경북 수출의 저변을 확대해 왔으며, 국제전시회 공동 참가와 해외경제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상담회, 수출 전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에도 경북 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

경주시는 12일 황성동 유림로13번길 일원에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열고 어르신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고령자 주거복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과 입주를 완료했다.

복지주택은 지상 15층, 1개 동, 총 137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26㎡형 109세대(쉐어형 16세대 포함)와 36㎡형 28세대로 구성됐으며, 고령자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으로 설계됐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포항시는 오는 16일부터 2026년 카드형·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인 포항사랑카드의 첫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연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됐으며, 총 230억 원 규모를 9% 할인율로 판매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500억 원 늘려 총 3,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상시 판매 기간에는 포항사랑카드를 9% 할인하고, 명절에는 포항사랑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베트남서 고교생 20명 봉사활동 ‘구슬땀’

경북교육청 1~2학년 8일간 참여
글로벌 시민의식·리더십 등 함양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 일대에서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하는 ‘2025학년도 해외 학생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학생봉사활동은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개 모집과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현지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활동은 팀별 봉사 과제 수행과 현지 기관과의 협업, 문제 상황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핵심 리더십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특히 베트남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연합 봉사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참여 중심 글로벌 시민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주요 봉사과제와 교류 프로그램은 SOS 아동센터와 투득칼리지, 쯔엉반티고등학교 등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환경 개선과 미화 활동, 학용품과 물품 기부, 미니 축제와 한국 전통문화 체험 부스 운영, 베트남 대표 문화 관광지에서의 환경 정화와 글로벌 환경·문화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인권과 평화, 상생의 가치를 체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상호 문화 소개와 체험 행사, 컬처박스 교환, 연합 봉사 활동, 한국어 교육 재능기부 협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경남 창원시 이·통장연합회 특례시 캠페인.

/창원특례시

창원 “특례시 권한이양·재정확보 집중”

4대 중점과제 성과 창출 주력

창원시는 2026년을 특례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핵심 시기로 설정하고,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동남권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행보다. 창원시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받은 뒤 꾸준히 권한을 넓혀왔다.

그간 성과로는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을 통해 연간 1만명에게 149억 원을 추가 지원했고, 소방안전교부세

50% 이상 증액으로 5년간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항만 운영 권한 확보로는 2년간 32억원,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액 세입화로 2년간 9억 원을 조성했으며 12개 비영리민간 단체에 공익활동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히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창원시가 동남권 거점도시로서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예술 중심 뉴욕서 ‘K-수묵 세계화’ 특별전

전남도 한국문화원서 30일까지 개최

전라남도가 수묵 예술의 다양성을 통해 케이(K)-수묵의 세계화라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뉴욕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까지 21일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뉴욕 수묵 특별전 개최한다.

‘뉴욕, 뉴잉크(New York, New Ink)’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케이-수묵의 확장성을 알리고 차기 연도에 개최될 수묵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해외 수묵 전시 사업 일환이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열린 개막식에

선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론김,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유시연 뉴욕호남향우회장 등 주요 내빈과 예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남도 수묵의 수준 높은 작품성과 현대 미술의 다양한 매체로 융합될 수묵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부대행사로 한복의 선과 주름이 수묵화처럼 우아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연출한 한복 퍼포먼스, 절제적이고 창조적인 수묵 정신을 체험하기 위한 정광희 작가의 일회 굿기 시연도 펼쳐졌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청도군, 공모사업비 2260억 ‘최대 규모’

역대 최소 군비 부담률 9.6%

청도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2025년 총 4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역대 최대 규모인 22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500억 원대의 열악한 자체 수입과 한정된 교부세 구조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2년 757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 1,373억 원, 2024년 1,566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260억 원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최대 공모사업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비 부담률은 2022년 39%에서 2025년 9.6%로 크게 낮아지며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러한 재정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청도군은 2026년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500억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울산 울주군

중소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울산 울주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9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군은 12일 군청에서 박용운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장과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자금난에 처한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기업은행 등 11개 협약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군이 이자 차액 3%를 2년까지 지원해준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우리와 “과학 기반한 프리미엄 펫푸드로 글로벌 시장 선도”

K-펫푸드 독립 연구시설 구축
연구·생산·검증 전 과정 내재화
‘제품품질 책임제’ 도입 신뢰성 확보
연구진·251개 항목 분석 역량 갖춰

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이하 우리와)가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품질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펫푸드 전문 연구소를 공식 출범시키며 산업 체질 전환에 나섰다.

우리와는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 보타닉게이트 지식산업센터에서 ‘2026 우리와 펫푸드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독립 연구시설 구축을 통한 연구 인프라 내재화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광용 우리와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후덕 우리와 펫푸드 연구소장,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곡 보타닉게이트 3층에 자리한 우리와 펫푸드 연구소는 전용면적 약 880㎡(266평) 규모로, 석·박사급 반려동물 영양학 전문 연구진 13명이 상주하는 국내 최대 수준의 전문 인력 기반 연구시설이다. 총 160억 원을 투자해 파일럿 엑스트루더(Pilot Extruder)를 비롯해 GC-MS/MS, LC-MS/MS, ICP-OES 등 최신 연구·분석 장비를 갖췄다.

연구소는 원료 분쇄부터 제품 개발, 관



‘2026 우리와 펫푸드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한 최광용 우리와 대표이사(가운데 오른쪽) 및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우리와주식회사

능 평가, 위해요소 검증, 경시 평가까지 펫푸드 제조 전 과정을 아우르는 7개 전문 공간으로 구성됐다. 일반성분,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물, 지방산 등 17개 그룹, 총 251개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 역량을 확보했으며, 잔류농약·곰팡이독소·중금속 등을 ppb 이하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분석 체계를 구축했다.

핵심은 실제 생산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구현한 파일럿룸이다. 총복 음성에 위치한 연간 12만 톤 규모의 생산기지 ‘우리와 펫푸드 키친’과 동일한 공정 조건을 적용해 연구 결과를 즉시 생산 공정에 반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제품 물성, 기호성, 영양 손실 등을 사전 검증하며 신제품 개

발 기간 단축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연구소 출범은 외부 기관에 의존해왔던 품질 검증 구조에서 벗어나 연구 개발과 품질 관리를 전면 내재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와는 ‘제품-기술-사람(Product-Technology-Human)’ 전략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반려동물 생애 주기와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영양 솔루션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김후덕 우리와 펫푸드 연구소장은 “그동안 국내 펫푸드 산업은 해외 기준과 기술,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 반려동물의 생활 환경과 특성에 맞춘 표준화된 연



우리와주식회사 연구원이 설비를 소개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구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혁신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도 병행한다. 우리와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멕시코 등록을 완료하며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재 과테말라와 계약을 체결했고, 칠레 등 인접 국가로 상단을 확대 중이다. 유럽 진출을 위한 러시아 등록도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등록을 완료했다. 미국 법인을 활용한 ‘남하 전략’ 역시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최광용 우리와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펫푸드 산업은 상

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했다”며 “연구소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되면 펫푸드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소는 단순한 기업 연구시설이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신뢰를 쌓는 인프라”라며 “과학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프리미엄 펫푸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와는 업계 최초로 전 제품에 생산자와 생산일을 표기하는 ‘전 제품 품질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펫푸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소를 거점으로 글로벌 수출 비중을 지속 확대하며 펫푸드의 기술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PC그룹, ‘상미당홀딩스’ 출범… 지주사 체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거버넌스 확립
창업정신 바탕, ESG 경쟁력 강화
계열사 독립적 경영으로 전문성 향상

SPC그룹은 13일 지주회사인 ‘상미당홀딩스(SMDH)’를 출범시키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인 ‘상미당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파리크라상’으로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해외 사업 확대에 발맞춰 투명한 기업 구조와 전문성을 갖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도 ㈜파리크라상이 대부분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지만, 사업부문을 분리해 순수지주회사인 상미당홀딩스로 거듭나면서 투명성과 ESG 측면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지주회사 사명은 회사의 출발점이 된

‘상미당(賞美堂)’에서 비롯됐다. 상미당은 1945년 고(故) 허창성 명예회장이 황해도 용진에 세운 빵집으로 ‘맛있고 좋은 것을 드리는 집’이라는 뜻이다. “수백만 개의 빵을 만들어도 고객은 하나의 빵으로 평가한다”, “빵을 나누면 끼니가 되고, 기술을 나누면 꿈이 된다”는 ‘상미당 정신’은 맛과 품질, 고객 신뢰, 나눔과 상생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의 기반이 돼 왔다. 상미당홀딩스는 이러한 창업 정신을 지주회사 체제의 중심 가치로 삼는다.

상미당홀딩스는 중장기 비전과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계열사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준비·안전·혁신 등의 핵심 가치가 각 계열사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계열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독립적인 경영을 통해 전문성과 실행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각 사의 브랜드 전략도 지주회사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개별 브랜드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배달의민족

“마장동 투썸 한우 집에서 받으세요”

마장축산물시장 업체 입점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최대 축산물 도매 시장인 마장축산물시장 업체들이 ‘배달의민족배민’ 장보기·쇼핑 서비스에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점으로 소비자들은 직접 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마장동의 신선한 한우를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입점 업체는 열광한우, 유원미트, 신선설한우 등 7곳이며, 서울 대부분 지역(강서구, 금천구 등 일부 제외)에서 이용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배민은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퀵서비스 대비 저렴한 배송 정책을 내놔다. 주문 상품은 퀵서비스로 배달되지만, 배달팁은 거리에 따라 최대 5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판매 상품은 1인 가구를 위한 실속형부터 선물용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1++ 등급의 차돌박이, 안심, 갈빗살 등을 5만 원 이하로 구성한 상품부터 안심·채끝 스테이크 세트 등 10만 원대 프리미엄 상품까지 용도와 예산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

오픈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배달팁을 3천 원으로 고정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일부 업체는 7만 원 이상 주문 시 무료배달 혜택도 적용한다.

/손종욱 기자

롯데마트, 스마트팜으로 채소값 잡는다

깻잎·오이 1000원대 판매

롯데마트가 계속되는 한파로 급등한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깻잎과 오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냉해에 취약한 잎채소와 열매채소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서울 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달 초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깻잎 도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51.1% 급등했으며, 오이 가격 역시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팜 채소를 대안으로 내놔다. 충남 금산과 부여 등의 농가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제어 시스템을 통해 재배



롯데마트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깻잎과 오이로 물가 잡기에 나선다. /롯데마트

한 ‘내일농장 깻잎(40g)’은 1990원, ‘스마트팜 오이(1개)’는 1190원에 선보인다. 이들 상품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온도와 습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해 품질이 균일하고 신선도가 높다. 롯데마트는 올해 스마트팜 채소 운영 물량을 전년 대비 약 20% 확대할 계획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홈플러스, ‘신안 자은도 대파’ 특가 판매

멤버십 회원 대상, 한 단에 2990원

홈플러스가 지역 농가와 상생을 강화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달 14일까지 ‘신안 자은도 대파’를 할인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자은도 대파를 한 단에 2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 특산물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안 자은도는 풍부한 일조량과 미세 날이 함유된 해풍, 겨울철에도 비교적



홈플러스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신안 자은도 대파. /홈플러스

온화한 기후를 갖춰 겨울 대파 재배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곳에서 자란 대파는 매서운 해풍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당분을 축적하는 성질이 있어 일반 대파보다 단맛이 강하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손종욱 기자

초고령화사회, ‘맞춤형 영양’ 내세운 케어푸드 시장 뜬다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자 1084만명
연세유업 의료진 전문성 살린 제품
빙그레 특허 출원 단백질 등 적용
대상웰라이프 맛 선택지 다양화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통계청 기준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며 고령 인구 증가가 소비 구조 전반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식품 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5.69% 증가한 1084만82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1만7378명) 가운데 약 21%를 차지한다. 고령층이 인구 구조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식품 소비는 단순한 포만 중심에서 ‘영양 설계’와 ‘기능 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특히 케어푸드 시장은 일반식 섭취



세브란스케어 구수한맛



/연세유업 GLC 더케어 2종



/빙그레 뉴케어 오토아몬드맛

/대상웰라이프

가 어려운 고령층을 넘어 저작·연하기능 저하, 만성질환 관리,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소비자 역시 브랜드 인지도보다 영양 근거와 장기 섭취 가능성을 따지는 ‘합리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유통업체가 발 빠르게 고령층을 겨냥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연세유업은 최근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및 영양팀과 공동 개발한 완전균형영양식 ‘세브란스케어

구수한맛’을 선보였다. 식품 제조 역량에 의료진의 임상 경험을 결합해 케어푸드 시장에서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제품은 연세유업 전용목장에서 생산한 A2단백 원유와 100% 국산콩 효소분해 두유 원액을 기반으로 했다. A2단백 원유는 소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B₂CM-7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두유 원액은 연세유업의 REH 공법을 적용해 장내 가스 발생 인자를 제어했다. 여기에 근육 유지에 중요한 류신 아미

노산과 연세대 특허 소재를 적용해 기능성을 강화했다. 식사 대용으로 활용 가능한 설계 역시 특징이다.

빙그레는 지난해 영양식 전문 브랜드 ‘GLC 더:케어’를 론칭하며 케어푸드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Golden Life Care’를 컨셉트로, 고령층의 일상 영양 관리를 겨냥했다.

대표 제품은 완전균형영양식과 당뇨영양식 2종으로, 자사 특허 출원 단백질과 비타민·미네랄 조합을 적용했다. 특히 당류와 나트륨을 낮추고 식이섬

유를 강화해 혈당 관리 수요까지 고려했다.

식품기업에서는 대상웰라이프가 균형영양식 브랜드 ‘뉴케어’의 맛 선택지를 넓히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구수한맛, 검은깨맛에 이어 지난해 ‘오토아몬드맛’을 추가하며 고령층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강화했다.

오토아몬드맛은 오토의 부드러움과 아몬드의 고소한 풍미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한 팩에 5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고, 비타민·미네랄을 강화해 일상 영양 보충용으로도 활용도를 높였다. 장 건강을 고려한 이소말토올리고당 함유도 차별화 요소다.

식품업계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기점으로 케어푸드를 ‘특수식’이 아닌 일상 소비재로 재정의하고 있다. 단순 제품 출시를 넘어 의료 협업, 기능성 설계, 맛과 섭취 편의성까지 경쟁 요소로 떠오르며 시장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6억 오디오부터 붉은말 골드바까지…

“편의점서 설 명절 이색선물 사볼까?”

실속형부터 초고가 상품까지 다양
가격 스펙트럼 넓혀 판매 경쟁 돌입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초고가 프리미엄 상품과 실속형 가성비 상품을 아우르는 선물 세트를 대거 선보이며 본격적인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설 선물 시장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억단위 명품부터 1만원대 실속형까지 가격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졌다.

CU는 설 선물로 편의점 업계 역사상 최고가 수준인 2억6040만원 상당의 ‘오디오백터 네트워크 오디오 패키지’를 내놓으며 프리미엄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는 덴마크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오디오백터의 수제작 패키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VVIP 고객을 겨냥했다.

GS25도 프리미엄과 가성비 상품 모두 준비했다.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총 700여종의 상품을 선보인 가운데 병오년을 겨냥한 금테크 상품이 눈



편의점 4사가 각각색설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들어선다. 가성비와 프리미엄 선물 세트가 모두 있는 게 특징이다. /이마트24

에 쫓는다. 대표 프리미엄 상품으로는 ‘붉은말 골드바(37.5g)’가 꼽힌다. 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되나 약 101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세븐일레븐은 만물상 콘셉트로 550여종의 상품을 준비했다. 특히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러닝 열풍’을 반영해 기능성 스포츠 액세서리

를 선물 세트로 구성한 점이 이채롭다. 이마트24는 소비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필코노미(Feelconomy)’ 트렌드에 집중했다. 편의점 업계 단독으로 ‘갤럭시 워치8’과 ‘갤럭시 버즈3FE’ 등 웨어러블 기기를 선물 세트로 구성해 천만 러닝족을 겨냥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일라이 릴리, 엔비디아와 AI 신약개발 속도

AI 공동 혁신 연구소 설립 계획 발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이중 산업간의 협력이 이뤄지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1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에서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공동 혁신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양사는 향후 5년간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컴퓨팅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 1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이번 연구소는 일라이 릴리의 의약품 발굴·개발·제조 분야 전문성과 엔비디아의 AI, 가속 컴퓨팅, AI 인프라 분야 리더십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본사를 두며, 일라이 릴리 내 생물학, 의학, 과학 분야 전문가와 엔비디아 최고 엔지니어들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우선 신약개발에 적합한 연속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4시간 보조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라이 릴리는 보유하고 있는 AI 슈퍼 컴퓨터를 확장하며, 엔비디아는 오픈 개발 플랫폼 엔비디아 바이오메도 등을 활용하는 등 양사는 인공지능 전환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HK이노엔 ‘케이캡’ FDA 신약허가 신청

내년 1월 발매 목표

HK이노엔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위식도역류 질환 국산 신약 ‘케이캡’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NERD) 치료 ▲미란성 식도염(EI) 치료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요법 등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동시 승인을 목표로 한다.

HK이노엔에 따르면, 미국 내 약 6500만 명의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중 35%~54%는 기존 치료제로도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다. HK이노엔은 향후 FDA에서 미국 허가 승인을 획득해 오는 2027

년 1월 환자와 의료진에게 케이캡(테고프라잔)을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캡은 앞서 2000명 이상의 미국 환자가 참여한 핵심 임상3상 ‘TRIUM pH 프로그램’에서 우월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서 테고프라잔은 24시간 가슴 쓰림이 없는 날의 비율에서 위약 대비 우월성을 보였으며, 야간 가슴 쓰림이 없는 날의 비율과 위산 역류 증상이 없는 날의 비율에서도 위약 대비 우월성을 나타냈다.

또 모든 등급(LA 등급 A-D)의 미란성 식도염 환자에서 테고프라잔은 2주 및 8주 시점 모두 PPI 계열인 란소프라졸 대비 유의미한 우월성을 보였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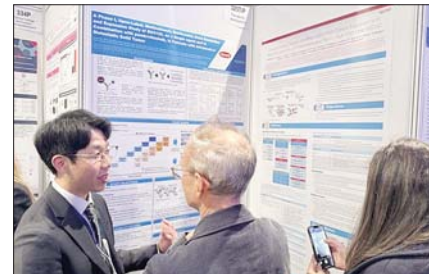
한미 면역항암제, 임상 1상서 유효성 입증

‘BH3120’, 치료 잠재력 확인

한미약품과북경한미약품이차세대면역항암 혁신신약으로 공동 개발 중인 ‘BH3120’의 단독 및 MSD의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 병용 임상 1상에서 초기 유효성과 우수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치료 잠재력을 확인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지난달 10~1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면역종양학 학술회에서 차세대 면역항암제 BH3120의 임상 경과를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 13일 밝혔다.

BH3120은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텐타바디’를 적용한 항암신약으로, 이를 통해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와 면역세포를 활성



한미약품 ONCO임상팀 김성중 선임연구원(왼쪽)이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면역종양학 학술회에서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화시키는 면역항암치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BH3120은 암세포 표면에 위치한 PD-L1과 면역세포 표면의 4-1BB를 동시에 타깃해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쉽게 인식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브릿지(bridge)’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SKB, 산업재해 예방 고용부 장관 표창 수상

SK브로드밴드가 '2025년 정부포상 전수 및 수여식'에서 산업재해 예방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받은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국내군 SK브로드밴드 안전보건실장(오른쪽)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SKB



제너시스BBQ, 조선대에 발전기금 10억 전달

제너시스BBQ 그룹이 지난 7일 오후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고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10억원 전달을 약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 기부는 민립대학의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환원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나눔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한다. /제너시스BBQ



한솔페이퍼텍, 한재초·중학교에 장학금 전달

한솔그룹 계열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전남 담양 한재초등학교와 한재중학교의 졸업식을 맞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간식차를 선물했다. 한솔페이퍼텍 HR지원팀 남윤갑 팀장(오른쪽)이 한재중학교 양사라 교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페이퍼텍



대신파이낸셜그룹, 나주시 9곳에 사랑의 성금 전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신송춘문화재단은 전라남도 나주시청과 가족센터, 어린이마동지, 이화영아원 등 9곳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용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오른쪽)이 김착한이 어린이마동지 원장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신파이낸셜그룹

제일기획-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캠페인

조회수 1000만뷰 돌파

13일 제일기획은 자사가 제작한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캠페인이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넘겼다고 밝혔다. 공공성과 금융 혜택을 결합한 콘텐츠 전략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캠페인은 병역 의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일상적 메시지로 풀어내며 젊은 세대의 공감을 끌어냈다. 카드 혜택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 복무 경험과 사회 진출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전자, 갤럭시로 1020세대 공감 콘텐츠 만든다

갤럭시 크루 발대식... 1년간 활동 11개 분야, 크리에이터 70명 구성

삼성전자가 갤럭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갤럭시 크루 2026'을 공식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 콘텐츠 크리에이터 '갤럭시 크루 2026'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갤럭시 크루 2026'은 운동·패션·게임·뷰티·댄스 등 11개 분야의 다양한 크리에이터 70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약 1년이다.

'갤럭시 크루'는 각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갤럭시 제품 사용 경험과 활용 노하우를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로 제작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갤럭시 AI 기능을 일



삼성 강남에서 지난 9일 진행된 '갤럭시 크루 2026' 발대식 현장 사진.

/삼성전자

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모습을 102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SNS 콘텐츠로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크루'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최신 갤럭시 모바일 제품 증정 ▲제품 공개 행사 초청 ▲공연·전시 등 참여 기회 제공

▲삼성전자와 SNS 콘텐츠 협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 크루'가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갤럭시 제품과 AI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일시멘트, 새해 헌혈캠페인 진행

서울남부혈액원과 업무협약

한일시멘트가 새해를 맞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치며 나눔을 함께 했다.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생명나눔 단체업무협약' 체결 이후 최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사 정문 앞에 마련한 헌혈 버스에는 한일홀딩스, 한일시멘트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이었다. 지난 12일에는 충북 단양공장에서도 헌혈 행사를 이어가며 향후 전국 사업장으로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헌혈 참여자가 급감하는 연말연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한일시멘트는 임직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일시멘트 본사 임직원들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헌혈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작은 실천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새해 시작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지난 2011년 임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 'WITH'를 창단하고, 2013년부터 연 2회 정기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 지원, 배식 봉사, 연탄 배달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여경協,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 접수

오는 2월 13일까지 신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접수한다.

13일 여경협에 따르면 올해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은 여성기업 발전·육성에 기여한 유공인사 발굴을 위해 337만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포상으로, 매년 7월 첫째 주에 열리는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포상 부문은 ▲모범여성기업인 ▲모범여성근로자(임원 포함) ▲여성기업 육성 공로자 ▲여성기업 지원 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부문이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제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등 장·차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은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여성기업인의 성과를 조명하는 계기"라며 "우수한 여성기업인의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포상 신청은 공고내용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여경협 포상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경협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6년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T 사천공장, 수자원 관리체계 최고등급

국제수자원관리동맹 인증 획득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는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AWS는 기업의 수자원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물 관리 인증 기관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에서, 골드(Gold), 코어(Core)까지 총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된다.

BAT사천공장이 획득한 플래티넘 등급은 수질 설비 및 관리 수준, 수자원 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전반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가 높

'갤럭시 크루'는 2024년 20여 명, 2025년 60여 명 규모로 시범 운영됐다.

2025년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갤럭시 크루'는 약 4000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고, 누적 조회수 9000만 회, 댓글 11만 개를 기록했다.

또 활동 기간 '갤럭시 크루'들의 팔로워 수도 16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삼성전자와 '갤럭시 크루'가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장소연 부사장은 "‘갤럭시크루’ 활동은 갤럭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만의 언어와 감각으로 갤럭시 경험을 함께하는 팬들의 이야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 102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은 수준으로 평가된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BAT 사천공장은 2022년 AWS 코어 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 개선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골드 등급을 넘어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공장 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6만 톤의 폐수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질 모니터링, 수질 오염사고 방지 민관 합동훈련, 홍수 방지 활동, 세계 물의 날 기념 사천 수변 지역 플로깅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자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우리은행, LCK 메인 파트너십 연장

라이엇 게임즈와 협약식

우리은행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국내 프로그래밍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메인 파트너십 계약을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치지직 LoL 파크'에서 라이엇 게임즈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난 2019년부터 이어온 파트너십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를 비롯한 양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여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개최하는 LCK 컵대회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에



정진완 우리은행장(왼쪽)과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

서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된 우리금융그룹은 LOL이 올해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정식 종목 채택된 것을 계기로 e스포츠 국가대표팀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인사

◆부국증권 <승진> ◇상무 △GS센터 배건도 ◇상무부 △전략금융부 김도운 △영업추진부 배종진 △고양지점 장성우 △채권금융본부 권대우 ◇이사보 △IB사업부문 박상현

부음

▲이규원씨 별세, 이종민(한국예탁결제원 감사부 팀장)씨 부친상 = 13일, 대전 보훈병원장례식장 40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대전현충원. 042-939-01143500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AI시대의 경고, 생존 위한 ‘국가의 대전환’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율주행과 챗GPT 같은 기술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며 각종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 노동의 미래와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기술 진보가 고단한 노동을 줄여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서늘한 경고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의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고, 세계경제포럼(WEF)은 2027년까지 전 세계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은행 역시 국내 일자리의 51%가 AI 영향권에 있으며, 대체 위험이 큰 ‘위험 그룹’이 27%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고용 불안에 직면한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고용 지표의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를 지탱해 온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노동-생산-소득-세금’이라는 견고한 순환 고리 안에서 살아왔다. 인간은 노동으로 소득을 얻고, 기업은 이를 통해 생산하며, 국가는 그 세금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지탱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로봇과 AI가 생산을 주도하면 인간은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소득 감소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재정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단절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기술과 플랫폼을 소유한 소수는 막대한 부를 쌓지만,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대다수 시민은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된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세계 각국은 이미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은 ‘AI법’을 통해 기술 통제와 노동자 보호에 나섰고,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를 통해 전 국민의 직무 전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당면한 경제 현안을 넘어 중장기적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리더십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구조적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범국가적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살

미래보장회의(가칭)’를 설립해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독립적인 상설 정책 개발·실행 기구여야 한다. 초당적 협력체로서, 복지·노동·교육 등 사회 부처들이 연합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국가 생존 전략을 집합해야 한다.

둘째, 복지 패러다임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 주거·의료·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뒷받침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UBS)’의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세’와 ‘로봇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셋째,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AI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대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에 맞춰,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라 평생 학습 체계를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는 세상. 변화의 시대,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인천대 사회복식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성장 멈춘 배터리 산업… 남은 것은 체력싸움



김지수첩
원관희
(산업부)

전기차(EV) 수요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시간은 ‘성장’이 아닌 ‘버티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V 중심 사업 구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어느 쪽도 단기간에 실적을 떠받칠 만큼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은 이 같은 국내 업체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CATL, BYD 등에 비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를 동시에 겪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수정과 EV 생산 계획 조정이 이어지

면서 국내 업체들이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취소와 집행 축소가 잇따르며 한때 성장 산업의 상징이던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올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배터리 업계의 본격적인 실적 회복 시점을 2027년 전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전략도 공격에서 방어로 바뀌고 있다. 대규모 증설 계획은 축소되거나 연기됐고, 일부 기업은 관련 사업에서 철수했다. 설비 투자와 신규 사업보다는 현금 흐름 관리와 고정비 통제가 우선되는 분위기다. ‘언제 다시 성장하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왔다.

대체 시장으로 거론되던 에너지저장장

치(ESS) 역시 기대만큼 빠른 해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글로벌 설치 용량은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배터리 셀 수요 역시 급격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V 부진을 단번에 상쇄할 만큼의 규모와 속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의 배터리 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성장 스토리는 잠시 접어두고,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늦추며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대는 물론 재생 에너지 육성에 발빠른 행보가 요구된다. 특히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을 손 놓고 방관자로 머물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국내업체의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당국의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한 때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4일 (음 11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일이 풀리니 침체하지 말고 능력을 정비. 48년생 먼저 양보하면 나중에 이득이 발생한다. 60년생 소지품 관리에 유의. 72년생 잘 지내는 친구와 여행을 계획해본다. 84년생 여마에 충실이 일어나니 교통사고와 언행에 유의.



37년생 순간 변화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진중하여지자. 49년생 상사를 존중해라. 61년생 작은 일에 과민반응은 손실로 연결. 73년생 능력이 적다면 신용으로 주변관계를 형성해보라. 85년생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외로워 마라.



38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수경을 읽어보라. 50년생 성실한 자세가 승진에 유리한데. 62년생 답답해도 인내심을 가져야 할 듯. 74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조심을. 86년생 하기 싫어도 해야 하니 이왕이면 시비를 가리지 말고 하라.



39년생 일에 손이 안 잡혀도 진행하면 이득이 발생. 5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63년생 험담을 줄이니 동료와의 관계가 개선된다. 75년생 친절함 이상에게 의심보다는 주관을. 87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사의 도움을 얻도록.



40년생 도난 우려가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 52년생 폭음을 삼가라. 64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결점도 찾아라. 76년생 부모님의 돈 요구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88년생 부동산에서 이득이 발생하니 빈집에 소 들어온다.



41년생 좋은 정보로 영업에서 이득을 얻는다. 53년생 요령수보다는 공부해서 투자하도록. 65년생 이성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 77년생 상대방이 외화내빈이나 무시하지는 마라. 89년생 평소애 인색하니 언제나 외롭다.



42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즐거움이 동반된다. 54년생 과다한 사치로 발명에 돌 찍힌다. 66년생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있어 하루가 바쁘다. 78년생 투자는 여유가 있어도 깊이 생각해서. 90년생 무리한 일 처리는 구설을 부른다.



43년생 지나간 인연에 연 연마라. 55년생 현재 위치를 생각하여 남의 험담하지 않도록. 67년생 평소 쌓아둔 신용으로 조력자를 만나다. 79년생 기술연마로 현재의식을 바꾸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91년생 행동반경이 좁아지니 청결하라.



44년생 목돈이 들어오니 소문내지 않도록. 56년생 종교나 정치에 관여 말고 할 일 목록히. 68년생 재물로 인한 가정사가 풀린다. 80년생 이득이 적어도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하자. 92년생 관재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전화금융사기 유의.



45년생 6시 지나 친구의 도움으로 일이 해결된다. 57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매매에 이득이 발생. 69년생 충동적 여행은 사서 고생한다. 81년생 질투는 초록의 여유가 생기니 인생에서 황금기. 93년생 득과 실을 비교하지만 냉정하지는 말자.



46년생 돈소문에 휩쓸려서 손재수가 따르니 확인하여 실행. 58년생 회식 자리에서 말조심할 것. 70년생 건강은 젊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 82년생 늦 고 있을 때가 아니니 긴장을 가져보자. 94년생 아랫사람에게 군이 조인할 것 없다.



47년생 소소하게 지출이 많아지나 아차피 나날 돈이다. 59년생 영업에서 이득이 생기니 힘써라. 71년생 영업은 감정조절을 잘해야 할 것. 83년생 집안의 잠동사니를 정리하여 운을 개선해보자. 95년생 산행 시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라.



김상회의四季 재테크 성공하려면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돈을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도 꾸준히 돈이 모인다. 명리학에서는 그 차이를 재성의 흐름으로 본다. 재성은 재물뿐 아니라 세상살이의 기술과 욕심을 조절하는 마음의 힘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성이 강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반드시 가난한 것도 아니다. 재성이 강한 사람은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빠르다. 반면 약한 사람은 물질적 계산보다 사람의 관계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재성에서 정재는 안정된 수입과 절제된 소비를, 편재는 변화와 기회가 되는 돈을 의미한다. 정재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나 꾸준하게 이어가는 저축에 어울리고, 편재는 사업으로 버는 돈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하는 흐름이다.

구조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재테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사주에 재성이 강한 사람은 돈의 흐름에 민감하고 돈이 되는 지점을 잘 짚어낸다. 그러나 재성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돈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해 타이밍을 놓치거나 과도하게 겁을 먹어 기회를 놓친다. 돈은 많은데 그 돈을 다룰 힘이 약한 상태를 재다신약이라 한다. 약한 사주는 재테크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게 먼저이며, 약해서 감정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사람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재테크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감에 의지해서는 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립식 투자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 재테크의 성공은 타고난 재성을 잘 활용하는 데 있다. 사주는 결과가 아니라 경향성을 알려주는 지도이니. 자신을 이해하고 운의 흐름에 맞춰 재테크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돈이 모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2	7	
							6
					8		
			9	2			3
5	9		1		3		4
3			4	8			
		9					
7							
	8	3		2			

5			4				7
	7				6		
				3			
		4	9			2	5
			5		4		
7		9			8	1	
				2			
			3				4
8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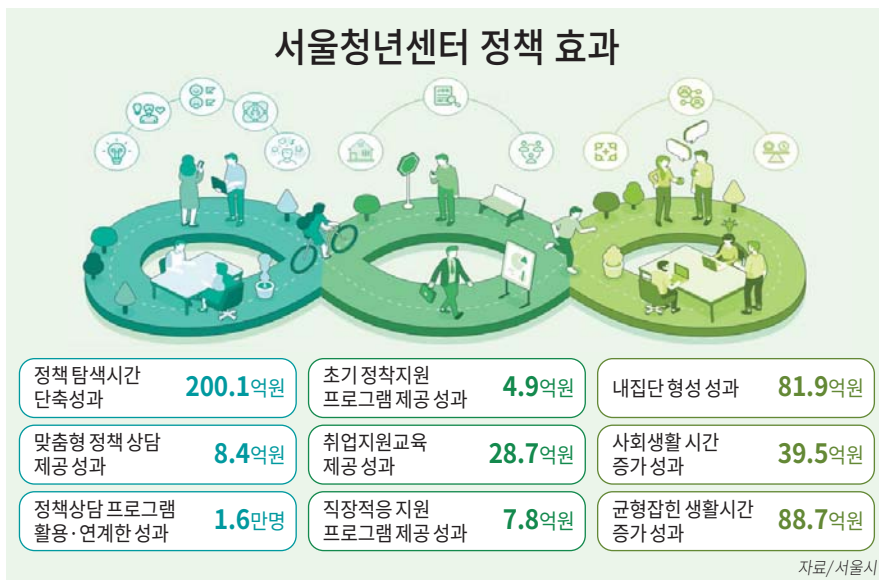
서울청년센터 정책 효과 1080억… 예산의 5배 효과 거뒀다

4년 간 이용자 10배 가까이 늘고
‘직장 적응 지원’으로 이직률 ↓
정책 탐색시간 단축 등 큰 성과

서울시가 청년 직장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정책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080억원 규모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예산(약 200억원) 대비 약 5.02배 효과다.

시는 이번 결과가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지난 4년 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센터 이용자는 2021년 10만여명에서 2025년 한 해 96만5076명으로 대



폭 증가했다.

서울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의 사회성치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은 ‘직장 적응 지원’이 꼽혔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인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컸다. 흩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인당 월평균 약 1.48시간 줄여준 결과, 200

억 1000만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청년센터 이용으로 확보하게 된 △투틴·자기 개발 등 균형 잡힌 생활 시간 증가 88억 7000만원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 7000만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 3000만원 등 성과가 확인됐으며,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도 4억 9000만원 효과에 초기 정착 기간도 약 34%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에 비해 지역 자부심·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분석은 그간 진행해 온 설문 형태의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청년센터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생활환경,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유, 심리적 요인 등 현실적 조건 등 청년 앞에 놓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사회성과 측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번 측정은 임팩트 평가 전문 연구기관(임팩트리서치랩)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서울청년센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담당자 심층 인터뷰,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시는 이번 성과 분석에서 도출한 31개 측정 기준을 앞으로 청년센터 사업에 적용,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 청년센터에서 운영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해 성과지표를 개발하면 이를 ‘취업지원 교육 성과 지표’로 확장, 다른 센터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의사 될래”… 의대 가는 과학고·영재학생 ↑ 문제풀이 수업 그만… 탐구중심 학습으로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 자료
2023년 41명서 지난해 48명
“학교 설립 취지 무색” 지적
국립의대 입학생 88% ‘N수생’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거점국립대의대 진학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국립의대에 입학한 학생 10명 중 9명이 재수 이상(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고·영재학교가 ‘N수 의대 경로’로 굳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학교 설립 취지와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문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거점국립대의대에 입학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은 총 205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명에서 2023년 41명으로 늘었

고, 2025년에는 48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 모집정원 확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전년도까지 모집 인원이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추세가 확인된다는 분석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과학고에서 5년간 113명이, 영재학교에서 92명이 거점국립대의대로 진학했다. 영재학교 규모가 과학고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N수생 비중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가운데 N수로 거점국립대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2021년 23명에서 2025년 46명으로 두 배 늘었다. 과학고는 2021년 13명에서 2025년 26명으로 증가했고, 영재학교 역시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반면 당해연도 졸업생의 의대 진학은 줄어드는 흐름이다. 2022년 8명에서

2025년 2명으로 감소했으며, 과학고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당해연도 졸업생 진학이 0명이다.

N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간 87.8%로 나타났다. 국립의대로 진학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10명 중 9명은 N수생인 셈이다. 학교별로는 과학고가 96.47%, 영재학교가 77.17%다.

연도별로도 N수 비중은 높아졌다. 2021년 79.31%에서 2025년 95.83%로 뛰었고, 과학고는 최근 3년간 100% N수생이었다. 영재학교는 2025년 들어 N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마치고 의대로 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N수생의 인원과 비중이 증가세”라며 “거점국립대만 파악했을 때 이 정도인데, 29개 사립의대까지 포함하면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K-STEM 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되던 수학·과학 수업을 학생 질문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탐구·협력학습으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를 맞아 서울 학생의 수학·과학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 통합 브랜드’ K-STEM 실행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수학교육·과학교육·융합교육 정책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STEM, 모두를 위한 STEM’을 비전으로 내걸고, 모든 학생이 데이터 기반 탐구 역량과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STEM의 핵심은 ‘수업의 변화’다. 문제 풀이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질문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 결론에 이르는 ‘데이터 기반 탐구중심 협력학습’과 ‘질문이 있는 STEM 교실’을 확산해 수학·과학을 실제 문제 해결의 도구로 경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수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수학 교구, 과학 디지털 센서, AI·SW 및 첨단 실험 기자재를 학교에 대여하는 ‘K-STEM Bank(교구 공유은행)’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간·지역 간 여건 차이에 따른 탐구 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공동·국제 탐구로 학습 경험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를 위한 STEM’을 주요 축으로 삼고 학습역량 결손 해소 프로그램과 수준별 탐구 모듈을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판교대장도서관’ 명칭 확정

오는 7월 개관 목표

성남시는 오는 7월 개관을 목표로 분당 판교 대장지구에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판교대장도서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은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결정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판교대장지구 인근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4개의 도서관 명칭 후보안을 놓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총 771명이 참여한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77명이 ‘판교대장도서관’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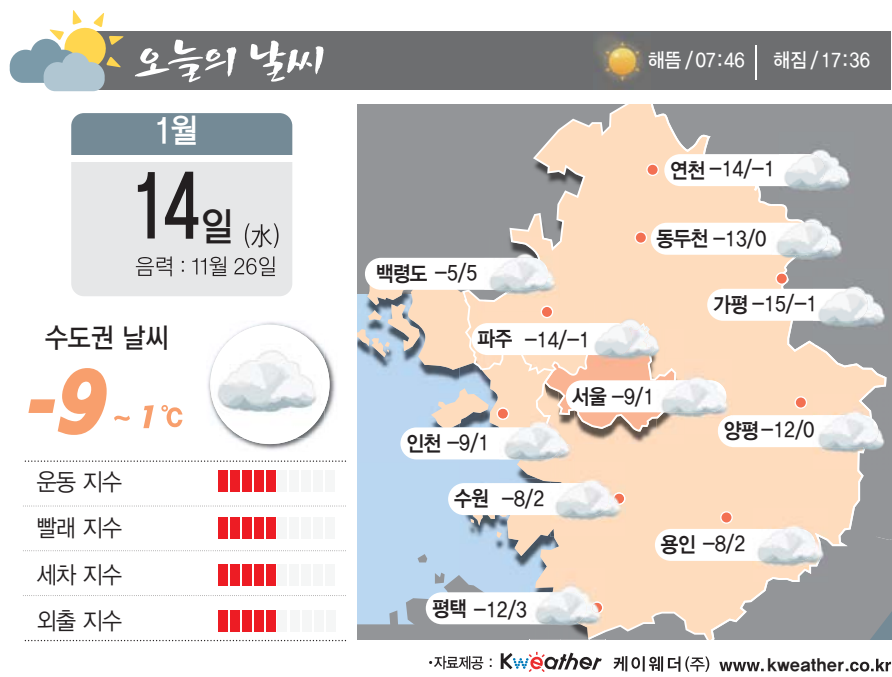
판교대장도서관은 2020년 4월부터 총사업비 289억 원(국·도비 56억 원 포함)을 투입해 대장동 187-4번지 일원(대장초교 인근) 시유지 1,863㎡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연면적 5,151㎡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시는 이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독서·문화·학습 기능이 어우러진



오는 7월 개관하는 성남시 판교대장도서관 조감도. /성남시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가족 열람실, 종합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다양한 독서·지식정보 제공 공간과 함께 생활문화센터도 설치한다. /성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올해 초등 1학년 30만명도 안 된다…초중고 전체는 500만명 붐비 /사진 뉴시스
▲“이 대통령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 원 구형

▲경북 영천영대병원 영안실 시신 무단 반출, 유족 반발 ‘물의’
▲“출소하면 죽인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7호선 청라연장선, 내년 일부 개통…스타필드 청라도 준공
▲소아심장외과 의사 27명 뿐…어린이 절반 이상이 ‘원정 수술’



우리와
K-펫푸드
연구시설 구축
나

metro®

Life

초고령사회
맞춤형 영양
케어푸드 돈다
L2



글로벌 무대 우뚝 K-中企... 친환경 물티슈 ‘새 역사’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한 영 돈 한울생약 회장

안정적인 직장 나와 불혹 나이에 창업
약초 달인 물 넣은 친환경 물티슈 생산
국내 물티슈 시장 점유율 25% ‘1위’

美·日 등 10여개국, 180개社에 수출
35개 생산라인 갖춰... 年 7억개 생산

유명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하던 그는 잘 다니던 직장 생활을 갑자기 접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 들었다. 약초 등을 넣고 물을 끓이고 이 물로 종이와 천을 적시는 실험을 끊임 없이 반복했다. 깨끗한 물도 아깝던 시절이었는데 생약추출물로 약티슈, 아니 물티슈를 만들기 시작했다.

누가 하라고 한 일도 아니다.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기존에 펄프, 종이 일색이던 물티슈 시장에서 섬유와 천을 이용한 물티슈에 도전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최초로 아기의 입안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티슈를 만들었다.

한울생약 한영돈 회장의 이야기다.

1951년생인 그는 불혹이 갓 넘은 나이에 한울생약을 창업했다. 91년 설립 당시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돈은 5000만원이 전부였다.

“자본금 5000만원이 1년만에 다 없어지더라(웃음). 그래서 그때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들은 다 찾아다녔다. 도움을 받아 공장도 짓고 기계 설비도 들여왔다.”

경기파주문산에 있는 선유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울생약 본사에서 만난 한 회장이 당시를 회상했다.

35년 세월이 훌쩍 지났다. 한울생약은 국내 물티슈 시장 점유율 약 25%로 1등,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그 물량이 국내 물티슈 총 수출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업계의 근계일약이 됐다.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와 같은 대기업 틈새에서 ‘K-중소기업’인 한울생약과 창업주 한 회장이 쌓아올린 명성이자 업적이다. 2024년 ‘제61회 무역의 날’에는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회장은 2021년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을, 2024년부터는 선유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회장을 맡고 있다.

선유산단에 있는 한울생약의 1·2공장은 친환경 물티슈 생산의 메카이자 ‘K-물티슈’가 세계시장으로 향하는 전초기지다.

“공장은 현재 총 35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가정용, 화장품용, 의약품 등 물티슈 형태의 모든 제품은 다 만든다. 물티슈



한영돈 한울생약 회장이 경기 파주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설명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경기도 파주 선유산업단지에 위치한 한울생약 파주 공장 생산라인.



한영돈 회장(오른쪽)이 아들인 한종우 대표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100매 기준으로 1년에 7억개를 생산할 수 있다. OEM 등을 통해 납품하는 전 세계 고객 기업은 180개 이상이고 수출국은 미국, 일본 등 10여개 나라에 이른다.”

한 회장이 공장을 함께 둘러보며 소개했다. 공장과 붙어 있는 아파트 13층 높이의 스마트물류창고는 사람이 없고 모두 자동화돼 있다.

한 회장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창고는 원료가 들어오고 사용하는 모든 선입선출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공장에서 출고한 이후에도 고객사의 창고에 들어가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고객사에도 공유하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재고관리를 하기에 좋다”고 설명했다.

한울생약은 분명 물티슈 회사다. 아픈 가족을 위해 약탕기에서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회사 초창기부터 간간하고 건강한 물을 만들어 티슈에 적용했던 그의 철학은 물티슈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 중 하나인 물을 만드는 과정에 그대로 녹아 있다.

한울생약 물티슈는 총 11단계의 공정을 거친 ‘초순수’만을 사용한다.

일반 물을 마이크로필터로 정수하고 이를

11단계 공정 거친 ‘초순수’만 사용해
간간한 pH 기준 적용...품질관리 엄격

美 코스트코 납품 건티슈 ‘수출 효자’
수출 확장해 올해 매출 1700억 목표

다시 역삼투압필터로 걸러 정제수를 만든다. 여기서 전해질을 제거하면 탈이온수, 즉 초순수가 된다. 이를 다시 오존가스로 살균해 냄새를 없앤 후 비로소 티슈에 골고루 뿌려야 친환경 물티슈가 된다.

특히 초순수는 pH(산도) 측정이 어려워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여기에 화학물질을 추가해 pH를 측정해 나온 pH값이 0.1만 어긋나도 불량으로 처리하는 등 관리도 매우 엄격하다.

회사는 3년전부터는 물티슈에 쓰는 부직포를 ‘생분해성’으로 만들고 있다. 한울생약의 물티슈는 일반적인 Z 모양이 아닌 W 형태로 접어서 담는다. 이때문에 한장씩 뽑아 쓰기에 매우 편리하다. 최근엔 마른 건티슈(dry towel)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건티슈는 ‘커클랜드(KIRKLAND)’ 브랜드로 지난해 8월부터 미

국 코스트코에 납품, 매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해외사업과 연구개발(R&D) 등은 2세인 한종우 대표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 파트너사와 친환경 부직포 개발, 각종 친환경 소재 연구, 글로벌 거래처 영업 및 상담 등이 모두 한 대표의 몫이다.

한울생약의 친환경 물티슈에 대한 집념과 도전은 자연스럽게 ESG 경영으로까지 이어졌다.

회사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 심사에서 상위 5% 수준인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또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첫 평가에서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인 ‘매니지먼트레벨 B’를 받기도 했다. 한 대표는 중진공 ESG 경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 대표는 “2025년은 1400억원의 매출을 예상했는데 이를 다소 뛰어넘었다. 올해 목표는 1700억원이다. 미국 코스트코에 건티슈를 납품하면서 500억원의 추가 매출이 예상되고 미국 서부지역까지 수출이 확장될 경우 이를 통해서만 연간 1800억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최대 3500억원 가량의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롯데맨’ 주형광 코치, 프로야구 KT 위즈에 새 등지
▲프로야구 삼성 후라도, 파나마 국가대표로 WB C 출전
/사진 뉴시스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9월 18일 개막...닷새간 열려
▲“문화유산이 산업으로” 박물관 상품 ‘뭇즈’ 지난해 매출 413억

▲BBC심포니와 함께 3월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 손열음
▲LIV 골프 아이언 헤즈, ‘코리안 골프 클럽’으로 팀명 변경